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을 키우는 아이들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과정

기간 2013년 5월 20일(월) ~ 7월1일(월), 7주 12강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3시(점심 제공)

장소 하자센터 신관 101호 등



차례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과정을 시작하면서	2
마을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4
공동체 운영원리	35
일본의 마을공동체 아만토의 운영원리	39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세상으로.. ..	50
도시에서 적용해본 재생에너지	52
성미산마을에서 배운다/오방놀이터에서 놀자/관과 소통하기	56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58
아이들과 상호작용	71
자발적인 "참여"를 열어내는 방법 배우기	89
돌봄을 함께 할 동네사람들, 어떻게 찾을까	91
텃밭하자!	93
아파트에서 '농사'짓는 강북 대치동 주민들	100
한걸음 한걸음 우리동네 나들이	105
나도 컨설턴트	113
마더센터 사례를 통해서 보는 돌봄공동체 자기 전망 찾기	114
독일 '마더센터' 여성들이 만든 돌봄 교육공동체	116
네덜란드 '파더센터',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과 사회가 바뀐다.	119
프랑스 주민단체 '빠랑부주(Parenbouge)	123
여성들에게	127
공동체와 품앗이	129
품앗이육아공동체	136
갈등 회피와 갈등 해결	138
공동체에 대한 개념정의	140
공동체 의식의 형성 및 역할	140
마을공동체의 의미	141
공동체 논의의 흐름	142
[추천도서]	143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마을의 귀환]	143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공동체교육 자료]	147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개	149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과정을 시작하면서

시끌시끌 골목에서 함께 놀기,
 으라차차 서로의 힘도 나누는 회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코디네이터 전문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이 서로 돌보며
 우리아이 함께 키우는
 즐겁고 새로운 길을 찾는 분,
 다양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움으로
 돌봄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는
 새로운 돌봄과 공공의 영역으로
 사람꽃들이 피워나가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강좌대상일까 아닐까? SELF TEST

1	회의진행이 어려우세요?	예 / 아니오
2	아이들과 엄마들과 뭐 하면서 놀지 걱정이세요?	예 / 아니오
3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으세요?	예 / 아니오
4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으신가요?	예 / 아니오
5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예 / 아니오
6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예 / 아니오
7	우리만 말고, 동네의 다른 분이나 단체랑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예 / 아니오
8	뭔가 재충전 되는 기회가 필요하세요?	예 / 아니오
9	좀 더 멋진 자신을 바라시나요?	예 / 아니오
10	시나 구청학교의 소통이 어려우신가요?	예 / 아니오
10개 항목중 '예' 가 6개 이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교육내용

오리엔테이션			
5월20일	1강	짚가에게 듣는 함께키우기에서 마을로 : 함께 키우기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유창복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2강	돌봄공동체 운영 원리 : 공동체 운영의 희노애락	박정이 오방놀이터 대표
5월27일	3강	[탐방] 성대골 에너지 마을에서 배운다 동작맘 카페를 소개합니다	김소영 성대골어린이도서관장
6월 3일	4강	[탐방]마을에서 배운다 -개동이네책방, 오방놀이터 공무원에게 듣는다 : 관과 소통하기	정영화 개동이네책방 방 대표 박정이 오방놀이터 대표 한석구
6월10일	5강	너와 내가 성장하는 공동체 의사소통	호정애 비폭력대화전문강사
	6강	사례로 듣는 영유아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6월17일	7강	자발적인 "참여"를 엮어내는 방법 배우기	김미경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교육연구팀장 민경은 여러가지연구소 대표
	8강	돌봄을 함께 할 동네사람들, 어떻게 찾을 까?	
6월24일	9강	나들이하자 : 놀이, 나들이, 코스 개발 장소 : 성미산	김민정 생태놀이 전문강사
	10강	텃밭하자 : 지렁이집, 상자 텃밭, 도시 텃밭 장소 : 상암텃밭	정영화 텃밭 전문강사
7월 1일	11강	나도 컨설턴트 : 5분 고충 사례발표 및 다함께 피드백	진행팀
	12강	마더센터 사례를 통해서 보는 돌봄공동체 자기 전망 찾기	박정이 오방놀이터 대표
	수료식		

본 과정의 특징

- 1) 수강시간동안 아이돌봄 요청시 가능함(무료)
- 2) 현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꼭 참가하시기를 추천함
- 3) 수료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명의의 수료증(10강 이상 수강시)과 6개월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 다른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4) 강의, 워크숍, 탐방,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1강>

마을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 성미산 마을살이의 이모저모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사)마을 대표

공동체, 마을, 최근 많이 거론되는 화두이다. 시대가 하도 험하고 삭막하니 그 대안으로 거론될 법하다. 결혼을 미루고 홀로 살아가는 젊은이가 늘어간다. 결혼을 해도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애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간다. 무연고 노인이 급증한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지만 그 노인들을 돌볼 사회적 준비는 한참 부족하다. 이미 가족이 그 구실을 못하고 있다. 취업이 난망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스펙 쌓기에 정신없다.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에 구멍이 송송난다.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도 나름 수준을 유지하려 허덕이고 외롭기는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공동체, 마을... 매력적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살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래 아이들 같이 키우고 수다 떨며 생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웃, 상상만 해도 흐뭇하고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진다. 한번쯤 떠올려본다. “나는 누구와 살아갈까?” 당장은 그냥저냥 살아간다 쳐도 “나이 먹고 힘빠지고 병들면 누굴 의지해 살아가나?”

하지만 두렵다. 공동체라는 말 그 자체가 주는 ‘무거움’을 어쩔 수 없다. 뭔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런 규율이 나를 강제하진 않을까, 아니 드러낸 규율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압박해올 것 같은 분위기가 더 답답하고 숨막힌다.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응당 해야 되는 의무방어진 같은 것이 많지는 않을까? 아니, 모처럼 쉬고 싶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 술 한잔 하자는 것은 아닌지. 회의가 많다던데

개인의 일상이 너무 노출되고 개인의 생활이 지나치게 방해받지는 않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는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전혀 그럴법하지 않게 번성한(?) 마을, 성미산마을 이야기를 해본다. 17년 전 자식 놈 키운다고 흘러들어와, 눌러앉아 살아온 내력을 밀천삼아 마을이야기를 늘어놓아 본다. 매력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그런대로 살아갈 만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싶다.

I. 왜 마을인가? - 마을에 대한 추억

한여름 세탁소 앞 커다란 평상에 동네사람들이 모여앉아 있다. 세탁소 아줌마는 "적~!" 하며 반 쪽 잘린 수박 반덩이를 끌어안고, 별정계 잘 익은 속살을 수저로 열심히 긁어내 옆 양푼에 옮겨 담는다. 세탁소집 아저씨는 어름 한 덩이를 그 양푼에 올려놓고 바늘을 대고 망치로 두들기며 갈갈한 어름조각을 만든다. 성질 급한 앞집 슈퍼아저씨는 나머지 반덩이를 배앗듯 가져다가는, 칼로 썩썩 썰어내 여러 개의 뽕조각을 만들어, 군침 흘리며 모여든 애들에게 나눠준다. 금새 다 먹은 애들은 그 앞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다. 종 큰 머스매 한 놈은 조무래기들 데리고 스윽 빠진다. 비스듬이 서있는 까아만 전봇대에, 겨우 매달린 가로등 불빛이 채 달을까 말까한 골목 한 켠에 모여앉아 귀신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평상에서는 수박껍데기를 뒤로 물리고 장기판이 벌어진다. 슈퍼아저씨, 아가 수박 썰 때의 용맹은 간 데 없고 '한수만, 한수만'을 구경하며 찰찰맨다. 그 앞에서 3학년짜리 꼬마는 코 파며 탄창 피우고 있다.

(평자가 어린시절 한여름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적은 글임)

마을은 호혜적 생활관계망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나 어릴 적 세탁소집 막내아들 시절, 서울 번두리 미아리, 우리 집 앞의 풍경이다. 도시에서 자랐지만 나는 이런 살가운 이웃들 간의 정겨운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요사이 '마을만들기'라는 이야기가 마치 구호처럼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더 강조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마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아닐까? 누군가가 만들고, 만들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닦친 생활의 문제를 하

소연하고,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고, 함께 협동해서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관계망이 바로 마을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원하는 생활자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회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편리하게 조직되어 돌아가니 말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겐 조직이 있어서 필요한 생활자원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저도 없는 서민들이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없고, 말 그대로 제 몸 하나하나 잘 건사하며 평생 일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몸뚱아리가 생활자원의 전부이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마을’이다. ‘호혜적 생활관계망’이다.

다시 농촌마을로?

그 옛날, 도시가 생기고 불려홀처럼 삶과 돈과 모든 것을 일거에 빨아들이기 전, 마을에서는..., 눈에 물대러 잠정들이 품앗이로 함께 들에 나가고, 새참바구니 머리에 이고 엉덩이 흔들며 들을 가로지르는 아낙들. 동네 어귀 정자나무 앞 평상에 모여앉아 ‘담배 세 개피’ 내기장기 두다 ‘한 수만’, ‘일수불퇴’를 외치며 다투는 노인들. 그 앞에서 조각대며 놓고 있는 동네 조무래기들. 머리 깎 단, 이제 다 커버린 아이가 출렁대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닌다. 어느새 우물가에 모여든 아낙들, 동네의 온갖 소문이 뽕 튀겨져 교환되고, ‘아 글썬, 그 여편네가 말이야...’ 각종 악플은 다 주렁 주렁 거기 매달린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 거킨다고 했던가, 푹푹한 농 도시 간다고 다 고향 뜨고 모저라 남은 듯 의기소침해진 띠꺼머리 총각, 훌어미 모시며 동네 굶은 일 도맡는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살았다.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스러저듯 힘없는 육선에 목소리만 카랑카랑한 노인도, 머리에 깎 단 이도, 종 모저란 띠꺼머리 총각도, 마을에서는 모두 제몫을 하고 살았다. 함께 돌보며 함께 위로하며 살았다. 마을에서.

(떨자가 지은 책 <우린 마을에서 논다> 인용함)

마을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그 답은 대체로 비슷하다. 정자, 느티나무와 그 아래 시원한 그늘, 가마솥, 송아지, 산과 들, 실개천, 우물, 물레방아... 사람들은 공동체하면 시골의 마을을 떠올린다. 도시화 이전, 농촌에서는, 자녀를 내새끼, 니새끼 구별 안 했고, 우리새끼로 함께 키웠다. 내 아이만 혼내지 않고 남

의 아이도 혼내가면서 키웠다. 애들은 동네 어른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었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관계였다. 머리에 꽃 달고 다니는 이도 마을에서 함께 돌보았다. 기력은 쇠했지만 성깔 있는 할아버지도 동네에서 큰소리치며 어른 노릇하며 살았다. 그런 추억들이 있는 마을, 그것이 도시화 이전의 마을이었다. 이렇게 그 시대 마을이란, 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공동체는 해체되고, 모두 개미떼처럼 도시로 몰려들어 따개비처럼 덕지덕지 떼 지어 살지만, 정작 아래윗집 누가 사는지 모른다. 어쩌다 주차 시비로 다투기라도 해야 옆 집 사는 이는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는 형편이다. 모든 것이 제 가족 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아간다. 그나마 가족이 유일한 공동체이다.

가족공동체는 무사한가?

그렇다. 이웃의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외롭고 무서운 도시에서 가족이 안식처인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공동체는 자연의 섭리로 형성된다. 마침 제 눈에 맞는 '콩깍지'에 쓰여,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시절을 보내고 나자, 사랑하는 이의 진면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수용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개떡 같이 얘기해도 찰떡 같이 알아듣는' 수용적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야, 진실이 진실로 전달되는 공동체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족은 무사한가? 우리나라가 IMF의 흑독한 시련에도 절단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가족 덕택이라고 한다. 당시 경제난의 여파를 가족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 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IMF 이후에 그 가족들이 많이 절단 난 것을 보면 과히 틀린 분석은 아닌 듯싶다. IMF의 시련이 가라앉은 이후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한다고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한다. 낳아도 키우는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결혼을 한 3쌍의 커플 중에 2쌍은 이혼을 한다고 하니, 가족을 구성하기조차

버거운 시대다. 가족이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이라는 역할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가족 파괴현상은 이미 새롭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이야기된다.

도시 속 마을공동체, 위험한 도약으로 시작된다

공동체(community)가 하나의 언어게임으로 달려있다면, 사회(society)는 최소한 두가지 인상의 언어게임이 마주치는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걸으로는 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 사랑은 타자, 또 다른 공동체에 속한, 혹은 다른 삶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매력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랑이란 감정은 삶의 규칙이 다르기에 내가 정확히 알 수없는 ‘타자에 대해 위험한 도약 혹은 비약’을 감행하는 것. 인간이 고독한 독백의 세계를 벗어나서 불안하지만 풍요로운 대화의 세계로 뛰어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다.

(가라타니 고건)

이렇게 농촌마을은 이미 파괴되었고, 자연의 섭리로 주어진 가족 역시, 이미 해체가 가속화되고 아이도 노인이 가족에서 배제되어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도시의 익명적인 주민들과는 어떻게 수용적 관계를 쌓고 이웃이 되어 마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그 이웃들과 마음을 내어 접촉하고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지지고 볶는 과정’을 서로 참아내야 한다. 결국 성미산마을의 역사는 제 새끼들 잘 키워보겠다고 모여서, 지지고 볶으면서 자기들이 커온 역사이다. 미리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관계도 아니고, 콩깍지가 만들어주는 관계도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함께 견뎌내며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바로 도시 속 마을이다

마을, 그 매력과 두려움. 그 사이…, “고독한 독백의 세계를 벗어나 불안하지만 풍요로운 대화를 향한, ‘위험한’ 도약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II. 마을만들기란 무엇일까?

마을을 두고 생각하는 마을의 지향이 다양하다. 거칠게 나누어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적 주거환경, 대면적/관계지향적 복지전달체계, 그리고 끝으로 민주적 마을살이. 물론 이 세 가지의 마을만들기가 무엇이 옳고 무엇 그른 것이 아닐 터, 오히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태적 주거환경

우선, 마을만들기를 ‘친환경적이고 공동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무턱대고 새로 짓고 보자는 ‘삽질주의’ 행태에 대한 대안이다. 최근 정부 들어 부쩍 심해진 뉴타운 토건주의가 결국에는, 원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의 개선이기보다는 정든 삶터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와 두리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요사이 서울의 구석구석마다 뉴타운 주민들의 ‘사업 철회’ 운동이 거센 것을 보면, 그동안 거대한 토건주의의 무지막지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손재주가 좋은 마을의 장인이 골목 어귀에 등을 달아 안전하게 밝힌다. 산동네 마을화가는 동네 애들과 함께 가파른 계단에 마을의 오랜 사연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신기한 듯 그림을 살피게 한다. 골목담장에 벽화를 그려 동네골목을 갤러리로 변신시키는 등, 6·70년대 동네골목의 살가운 경관을 되살려 보자는 것이다. 걸핏하면 부셔서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손봐서 쓰자는 것이다.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의 내력이 고스란히 묻어있어 정겹고, 살아온 기억을 되살리는 흔적이 아련한 그런 동네... 마을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자연경관이 자랑스럽게 보존되는 마을, 무엇보다 아파트 짓겠다고 삶터를 헐어내는, 정작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타지로 쫓겨나듯 떠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면적·관계지향적 복지전달체계

국가기관이나 복지기관의 사무적인 복지전달 방식이 도마에 오른다. 정작 그 전

달의 수혜자가 꺼리기까지 한다. 관이 지원하는 방과후센터에 아이들이 가기 싫어한다. 소위 낙인감 때문이다. 이렇게 관이 일방적이고 행정적으로 전달하는 복지 자원의 배분이, 정작 수혜자의 마음과 필요는 세세히 살피지 못하는 모양이다. “주면 고마워 할 것”이라는 ‘주는 자’의 일방적인 입장은 아닌지.

대면적이고 관계지향적 복지전달이란, 지역에서 함께 사는 이웃들 간에 서로 돌보고 살피는 관계를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자원을 전달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필요한 자원을 지역에서 스스로 모아내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지역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주고 말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네이웃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다. 자기 집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동네 골목길 가로등이 어둡다는 불평도 함께 하면서, 형편이 어렵게 된 사연도 들어주고, 잘 될 거라고 뻔한 덕담도 주고받는, 그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마을살이

마을살이란,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과 동일한 필요를 가진 이웃과 함께 협동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은 (돈이 없어) 시장에서 좌절하고 (관심 없는) 국가로부터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해결해 가는 ‘삶의 필요’를 깨닫는 과정이다. 또한 나의 필요가 곧 이웃(타인)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함께 협동해야 할 이유를 공감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동은 대단히 번거로운 과정이다. 함께 한 이들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와 공존하는 감수성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협동의 진통을 견뎌내고 나면, 즉 협동의 성공적 성취는 협동의 위력과 가능성을 대변에 일깨워준다. 이는 내 생활을 내 힘으로 해결해나는,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제거의 필요를 느끼는 과정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내가 주인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 아닌가. 바로 ‘주민주권’이다. 마을은 주민주권의 학습장이자, 실천장이다.

Ⅲ. 성미산 마을살이 小史

성미산마을의 씨앗

우리 마을은 마포구청 뒤에 있는 성미산을 둘러싸고 자리 잡은 마을이다. 행정 구역으로 말하면,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을 망라하는 지역이다. 10여년전 2011년부터 성미산지킴이 싸움으로 신문,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요새는 매년 나라 안팎을 불문하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4,000여명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는다. 우리 마을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을’이라고 자연스레 말하기까지는 약 2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

1994년, 제 아이를 어디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맞벌이 부부들 20여 가구가 뭉쳤다. 그들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먼저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을 모은 뒤, 모여진 자금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인 ‘우리 어린이집’이 마포구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다. 이듬해 1995년에는 두번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날으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1999년 방과후교실이 역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육아의 철학에 공감해, 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이 살던 곳을 과감히들 정리하고 하나둘 어린이집 터전 주변으로 이사해온 것이, 이제 집단이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부리나케 이사 와서 개원 초기 술한 과제에 파묻혀 끝도 없는 회의와 참여활동 속에서 어느덧 아이들은 쑥쑥 커갔다. 당시 장난꾸러기 최고참 꼬맹이가 지금 24살의 여엿한 청년이 되었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들은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다. 애들 덕에 어른들이 무척이나 친해지고 살가운 관계가 되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나 아는 사이가 되었다. 보통, 아이들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우리 애들이 잘 자라려면 우리 동네가 살만한 곳이 되어야 했으니까.

최초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2001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물론 공동육아조합이 귀중한 기반이 되었다. 생협은 친환경적인 먹거리 공동구매를 주요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터나갈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협은 연매출 50억이 넘고, 출자자가 5,500여 가구에 이르고 다양한 지역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아리활동(산악회, 농사모임, 아토피.부모역할 공부 등 각종 공부모임, 합창반, 민요 배우기 모임) 결성과 운영 지원, 매년 열리는 성미산 마을축제, 숲속 음악회, 마을 운동회, 그밖에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를 조직하는 중심에 생협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성미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만 2년(2001년 7월~2003년 10월)을 넘게 함께한 장기투쟁으로 지역주민의 열성적이고 끈질긴 참여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우린 마을에서 논다

생협을 만들던 2001년 5월, 지역사회에 생협을 알리자고 시작한 축제가 매년 이어져 벌써 10회가 넘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성미산에 만발하는 아카시 꽃내음이 동네에 가득할 때 축제가 시작된다. 마을의 끼 있는 주민들이 무대에 나와 열정을 불사른다. 이제는 일 년에 한 번하는 축제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날마다 축제를 하고 싶다고, 갖가지 마을동아리들의 놀이터인 <성미산마을극장>을 만들었다. 극장은 1년 365일 하루도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절반은 주민이 무대에서 서고, 절반은 프로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선다. 영화, 연극, 콘서트는 물론이고, 패션쇼와 성인식 등 이벤트가 열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회의와 잔치가 벌어진다. 마을회관과 마을극장 그 경계에 있는 마을의 광장인 썸이다. 극장이 생기니 주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번성한다. 동네풍물 <성미산풍물패>, 마을극단 <무말랭이>, 사진동아리 <동네사진관>, 동영상 동아리 <물뜨네>, 엄마아빠들의 로망인 록밴드 <아마밴드>가 만들어지고, 마을합창단과 드로잉 동아리 등등 15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한다.

뿌리를 내리는 마을살이

생협을 고리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고, 성미산지킴이투쟁을 통해 마

들과 하나된 성미산마을의 주민들은 더욱 본격적인 ‘마을살이’를 한다. 초중고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12년제 대안학교를 주민이 나서서 만든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4년 9월 개교를 하였으니 벌써 10년차에 접어들었다. 17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집-방과후교실-마을학교 꿈터에 이어 초중고 대안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시스템이 완성된다. 육아에서부터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무살 성인이 되기 전(前)의 시기를 함께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마을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몇 년을 한 집에 살아도 앞 뒷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 이사 가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궁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투텁게 연결된다. 이게 바로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고 바로 마을이다.

마을기업과 마을고용

생협에 이어 매년 한 두 개의 마을기업이 창업되었다. 2002년 100% 유기농 식재료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반찬가게 <동네부엌>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마을카페 <작은나무>, 동네식당 <성미산밥상>이 주민들의 출자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모으고 ‘품앗이’로 일을 나누어 협동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돈이든 품이든, 여럿이 함께 나누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장애를 가진 마을청년 수진의 일터인 <성미산공방>, 수제비누를 제조하는 <비누두레>, 친환경 면생리대, 이불보, 한복 등을 생산하는 <한땀두레>,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두레>는 모두 솜씨 좋고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사업체로 창업되었다. 최근에는 대안적인 주택개발시행사인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가 설립되어 코하우징(co-housing)개념의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다. 이렇게 마을에는 20여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된다. 사업자금은 동네 사람들이 형편대로 출자하여 만들고, 시간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운영을 책임진다. 마을기업에서 일하는 주민이 대략 150명 가량 되니까, 주민들이 창업한 마을기업이 적지 않은 마을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IV.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세가지 의문과 상상에서 비롯된 학교, ‘마을학교’

당시 대안학교를 꿈꾸던 우리들이 상상한 학교는 마을학교였다. 마을에서 만드는 학교이니 당연 마을학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교에 대한 세 가지의 의문과 상상에서 비롯된 학교 성격이었다.

첫째, 왜 군대나 감옥처럼 지어진 학교에 가서만 공부를 해야 되나? 초등이나 중고등이나 학교 모습은 거의 똑같이 생겼다.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뒤로는 4층 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참 멋대거리 없이 둔탁하게 버티고 서 있다. 그 주위는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는데 군데군데 개구멍이 있고, 정문에는 헌병을 연상시키는 선도부가 큰 벼슬이나 하는 듯 뻗뻗하게 서있다. 어쩔 그렇게 군대와 비슷한지. 마을 곳곳이 교실일 수는 없을까? 생태학습은 성미산에서, 경제학습은 동네 생협이나 마을의 여러 크고 작은 마을기업들에 가서 하고 말이다.

둘째, 왜 공부는 나라에서 정한 교과서로만 해야 하나?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양한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학습하면 안 될까? 마을축제에 참여하거나, 아예 기획 일을 맡거나 아니면 디카나 캠코더 들고 기록하며 문화를 공부할 수는 없을까? 생협의 공동구매 물류시스템을 조사하며 경제를, 생산지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과 농촌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가늠해보고 등등...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바로 학습의 꺼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셋째, 왜 교사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나와야만 될까? 동네 주민이 아니, 내가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수업에 참여하면 안 될까? 은행에 다니는 현수 아빠가 경제(화폐금융)를, 요가 전문가인 여해 엄마가 요가수업을, 화가인 상수엄마가 미술수업을, 시민단체의 환경활동가인 호영 아빠가 환경을, 이렇게 한동네 사는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이건 취미이건 자신 있는 한 분야를 맡아 한 학기 강의를 감당하면 어떨까? 오히려 전문교사들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처럼 아이들의 관심사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대에 이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마을이 다양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터라면, 바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기를 맛보고 미래를 꿈꾸는 교육의 터전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성미산학교를 처음 만들 때, 마을이 학교가 되는 그런 학교, 학교 안에 갇힌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담을 넘어 마을을 누비며 공부하는 학생, 교사도 학교에서 상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이, 학부모가 교사가 되는 그런 학교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를 마을학교라 했고, 그것도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 있으니 도시형 학교, ‘도시속 마을학교’라 불렀다.

12년제 학교, 손가락 하나 더 없으면 되잖아?’

성미산학교는 12년제 학교다. 지금 우리나라 학제로 치자면 초중고가 한꺼번에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경우라 한다. 처음 학교의 시작이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이사가려던 예비학부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초등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강산이 상현이는 어느덧 중학교 2학년, 널모레 고등학생이 된단다. 하 참, 세월하고는. 개네들은 입시경쟁의 전장이 코앞이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는 거다. 아이들도 별로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괜한 걱정일까? 부모들도 입시전선에 치맛바람 휘날리며 설칠 것 같지도 않고, 달리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서로들 어정쩡하게 서있는 것 같았다.

한슬이와 나라는 벌써 이우학교로 갔다. 달리 대안이 없는 마당에 공교육엔 보낼 수 없어, 마침 막 개교한 이우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심란해했다. 이 두 가족들은 우리어린이집 창립 조합원들로 도토리 방과후 설립과 운영은 물론 성미산투쟁까지 함께해온 오랜 동지(?)같은 이웃이었다. 아니 언니 같이 의지하며 살아온 가족이었기에 서운함이 더했을 거다. 한해만 지나면 재현이도 중학생이 된다. 창희, 경빈이, 형기 등과 함께. 그 다음 해에는 민수, 상호, 무리, 주현, 근아 … 등 줄줄이 중학교에 간다. 중학교 과정을 추가하기로 한다. 그런데 상현이 강산이는 좀 있으면 고등학생이 된단다.

“중학교를 만드는데 고등학교야 손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것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초중고 12년제 학교가 되었다. 성미산학교의 12년제 학제는 그에 대한 교육철학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의 연령, 그 아이 부모들의 요구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2년 학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선 12년 학제는 통학년의 장점이 있다. 12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길게 보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아이의 성장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는’ 생활을 익힐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지!

아이들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감수성이 존중되고, 그로부터 학습의 동기를 찾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학습 과정, 갈기갈기 분절된 교과 체계와 지식의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현실의 연계와 종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맥락 있는 통합적 교육 과정, 추상적인 보편 지식의 암기와 언어적 재현이 아니라, 지식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지식생산자의 입장에서 구성해 보는 학습 과정을 구현해 보고 싶었다.

이러한 우리의 꿈은 보편 지식의 존재와 그 위력을 약간 비켜서서 볼 수 있고,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가벼이 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현실의 ‘만만치 않음’과 ‘어처구니없음’을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싹틔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 갇혀 세상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대학 가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과 강요에 사로잡혀 주입과 경쟁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아이들, 반대로 그나마 학교에서도 자리가 없어 게임과 소비를 탐닉하고 일탈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고, 미래를 그릴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현실이다.

비록 어른들이 주도하지만 그 세상과 그 속의 어른들과 소통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회의 엄연한 성원으로의 자신감과 생활력을 성장시켜 자신의 꿈을 현실에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가 세상으로 걸어 나와야 하고, 세상 한복판에 학교가 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폭력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상업주의가 범람하는,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위험사회’에 무방비로 나서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통과 교류가 있고 그래서 정붙일 친구와 어른이 있는, 답답하고 싫증나서 박차고 나섰지만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고향과도 같고 알피니스트들의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늘 넘나들며, 맛보고 냄새 맡고 부벼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설정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마침내는 세상에 우뚝 서서 살아 가야 할 것이다. 세상을 향한 도전이 허용되고, 상상이 격려 받고, 실패가 패배가 아닌, 그런 안전한 터전이 필요하다.

결국 학교는 세상 속이면서도 안전하고 소통이 있는 공동체적 공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것이 대안학교 운동이 공동체 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학교만들기는 공동체적 시민사회 만들기의 일환이자, 그 중심이고 출발점이다.

‘가정에서 새로운 학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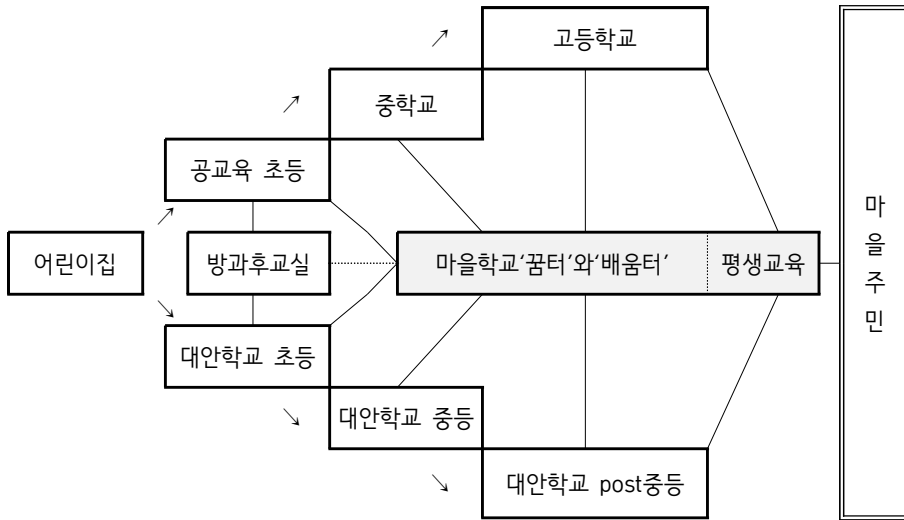
십 수 년 전, 대안학교가 이 나라에 처음 생겨가기 시작할 때에 대안학교를 찾아 나선 이들이 가슴에 품은 슬로건일거다. 압축적인 산업화로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갔고,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학교는 이미 마음 붙일 곳을 잃은 이 아이들을 거두기는커녕, ‘입시’라는 획일적인 한 줄에 밀어 넣고, 그 팽팽한 줄에서 쳐지거나 튕겨지는 아이들을 낙오자로 낙인찍어 내치고 있었다. 그 당시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운 학교가 필요했다. 그 후로 많은 대안학교가 생겨났다. 십 수 년에 걸친 대안학교의 실험은 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이제 대안학교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절묘한 합작으로 돌아가는 ‘무한경쟁’적인 우리 교육에 절망한 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나섰다. 전국에 걸쳐 그 수도 대단하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일단의 세

력이 된 것 같다.

‘학교에서 마을로’

하지만 대안학교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거부할 힘도 없어 보인다.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욕망도 희미해 보인다. 요즘 아이들을 두고 ‘동기부재’의 세대라고 하던가.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동기를 확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 자기의 존재를 관계 곧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로부터 확인하고, 소통의 방법과 언어를 익히며, 그들과의 다름을 풍부함으로 성취해 갈 줄 아는 생활인으로 성장해 가야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던가? 일상의 생생함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지만 그곳으로부터의 일탈의 시도가 보장되고 지원되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 울타리는 모두 파괴되어, 냉랭한 아파트 숲으로, 상업주의로 흥청되는 소비와 욕망의 거리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다시 울타리를 치고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원되고, 우리 아이들도 비로소 숨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성미산학교’의 설립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어져 온 대안교육의 실험을 초등-중등에 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취학 전’에서부터 초중고 과정까지 교육적으로 일관된 원칙과 방침으로 아이를 돌보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로써 마을은 대학교육 이전까지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이중적 교육시스템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운용해 갈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된다.



V. 마을문화 - 시민문화육성과 성미산마을극장

시민문화? 주민문화?

언제부턴가 ‘시민문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아마도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를 지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인 풍요를 이루자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핵심은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소비를 풍요롭게 하며 나아가 참여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공연관람, 축제관람 등 시장을 통한 개인적인 소비활동에 그치고 만다. 여기서는 전문 공연자의 일반적 전달과 관객의 수동적인 수용만이 있다. 문화소비를 통하여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삶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문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시민문화’라는 표현보다는, 그나마 삶(일상적인 생활)의 관계가 형성되는, 아니 그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 ‘주민문화’라는 말을 쓰고 싶다. 최소한 우리마을의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말이다. 주민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라는 일정한 정주적(定住的)인 공간의 범위를 떠오르게 한다. ‘동(洞)’ 단위 정도의 공간은 차를 타지 않아도 걸어서 돌아볼 수 있고, 그럭저럭 근린시설들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생활단위이다. 아이들도 학교를

거점으로 친구들과 노는 관계망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은 동네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승리로 이끈 후 엄청난 성장을 하였으며, 육아는 물론 교육, 먹거리, 일상적인 생태·환경프로그램과 노인 및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 차원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확장된 마을의 형편에 맞는 새로운 소통과 공감의 문화가 절실했다. 회의와 뒷풀이 술자리, 끼리끼리 수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소통의 갈증과 빈 곳을 메우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름 아닌 ‘놀이’이다. ‘함께놀이’, 함께 놀며 소통하고 공감하기이다. 그래서 성미산마을극장은 바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놀며, 꿈을 노래하고 그 실험을 공유하며 그 성과를 축하하는 곳이다.

성미산마을극장은 마을주민들이 운영한다. 음향, 조명은 물론 티켓팅 등 하우스 업무까지 주민들로 이루어진 스텝들이 맡아서 운영한다. 처음에는 각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주민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고, 지금은 경험과 전문성은 없지만 너무 좋아 보여서 하고 싶어서 참여한 주민들이 앞선 이들에게 배우며 실습하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마을의 큰 아이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길찾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마을극장은 마을주민이 쉽게 관람하는 극장이지만, 동시에 마을주민이 직접 보여주는 곳,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1. 소비자 : 지역사회 문화예술 대안적 소비

일상의 공간

마을에, 그것도 주택들이 밀집해있는 동네 한복판에 극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극장은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한다. 예전에는 연극을 한편 보려면 대학로까지 몇 날을 버르고 몇 시간을 준비해서 다녀온다. 그러나 요즘은, 설거지 하다가도 “참! 오늘 00 공연 있었지?” 서둘러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 손잡고 집을 나서면 바로 극장 문 앞이다. 길어야 20분이면 극장에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마을을 지나

다가 벽에 붙은 극장의 공연 홍보물을 보고 극장에 갈 마음을 낸다.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극장을 만만하게(?) 여기게 되었다. 동네에서 집에서 놀다가 엄마아빠 손에 이끌려 극장에 온다. 극장이 마치 제집인양 놀이터인양 조심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심하게 잡지 않는다. 아이들도 한 1년 지나고 나니 훈련이 되어서인지 제법 관람태도가 성숙해졌다. 더 어린아이들은 극장의 쿠션객석을 보면 바로 뒹굴고 싶어 한다. 극장은 분명 일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공간이지만, 그 일상의 ‘연장’에 놓여있는 공간이 분명하다.

마을극장과 마을회관의 경계

성미산마을극장은 어느 상업극장이나 공공 공연장들처럼 특정한 예술장르에 꼭 맞추어 지어진 공간이 아니다.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를 다 담아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극장의 콘텐츠는 어느 한 장르에 한정할 수 없고,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각종 워크숍이 극장에서 기획되고 진행된다. 작년의 개관기념 페스티벌 이래로, 주민관객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편리하고 풍성하다’로 받아들인다. 한 곳에서 여러 장르의 각양각색의 공연을 소비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한편 상주단체(극단 등 전문예술단체)와의 결합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공연과 워크숍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극장 독자의 기획으로 영화관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관을 통하여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한편 극장은 문화예술 공연이나 워크숍 말고도,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회의도 감당해 낸다. 마을 어린이집의 송년잔치가 열리고, 마을에 사무소를 둔 시민단체의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인근 출판사의 출판기념행사로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진행된다. 동네 큰 아이들의 성년식이 그 아이들의 부모, 가족과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극장에서 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극장인지 회관인지 헷갈린다. 극장이 담아야 할, 아니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극장 스태프들은 매번 토론을 벌인다. 어쩌면 성미산마을극장은 ‘마을극장’과 ‘마을회관’의 경계에 서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굳이 어느 하나로 답을 낼 필요가 없이 말이다.

2. 생산자 : 동아리, 주민 예술교육과 예술인 네트워크

“나도 하고싶다”

마을극장의 효능은 역시 ‘주민동아리’이다. 물론 극장의 설립이 마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역으로 극장의 설립은 동아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신규 동아리를 탄생시켰다. 요사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취향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참여, 직접 참여’하고 싶은 욕구이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양에 안차는 것이다. 직접 하고 싶다. 직접 무대에 서고 싶은 것이다.

극장에서 마을극단 <무말랭이>가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주민관객들의 반응은 전문배우들의 연극공연 때와는 사뭇 다르다. 걱정을 한다. “잘 할까? 대사를 까먹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는 조바심이 되고, 차마 배우의 눈을 바로 응시하지도 못하며, 아슬아슬한 긴장된 마음으로 공연을 본다. 하지만 10분, 20분 그런대로 공연이 별 탈 없이 이어지자, 긴장된 염려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들고 공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막이 내리고 감동이 몰려온다. “참 잘한다.” 그런데 주민배우들의 공연이 주는 감동은 “참 잘한다”에서 그치지 않는다. “나도 하고 싶다.”로 나아간다. 이 점이 바로 전문예술인들의 공연과 주민예술인들의 공연의 차이이다. 주민 예술인들의 공연에 대한 감동은 바로 ‘나도 하고 싶다’는 욕구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극장이 개관된 이후, 어르신연극반이 만들어지고, 16명의 청소년들이 연극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 합창단이 결성되었으며, 벌써 두 번이나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디카 동아리인 <동네사진관>의 강좌가 대박이 나서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아마밴드, 성미산풍물패, 드로잉 동아리 등 이미 마을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들 역시 극장에서의 정기공연과 전시를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추어 연주연습과 습작활동을 한다. 극장은 주민들의 강렬한 예술적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용기와 가능성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극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연이나 전시 등, 발표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예술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여력이 된다면 연습실을 알선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커뮤니티 베이스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터전

동아리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 스스로의 동기와 힘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동아리의 결성은 계기가 필요하므로, 지원이 제일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예술교육은 통상 3개월이 고비이다. 기타강습을 예로 들면, 몇 가지 기본코드를 잡고 포크송 한두 곡을 연습할 정도가 되면, 사람들의 결석이 잦아지고 모임이 흐지부지된다. 이럴 때 공연을하기로 하면 다시 살아나곤 한다. 극장에서 기획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은 대부분 극장에서 발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출발한다. 공연을 목표로 할 때에는 예술교육이 단순한 기예의 전달과 숙련에 머물지 않는다. 공연의 컨셉을 고민하고, 관객의 반응과 관객과의 소통을 전제한다. 관객도 그동안 마을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온 함께 사는 이웃들이기에 모든 공연에 관련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구체적이다.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들은 과정을 함께 통과한 '전우애'까지 생긴다.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인한다. 워크샵 모임이 지속적인 동아리로 한 단계 깊어지는 것이다.

극장에서는 세대별로 접근할 계획이다. 청소년, 장노년층, 청장년층, 주부, 아동 등 마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리 결성을 유도할 작정이다.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우선은 그들끼리, 그리고 발표(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주민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극장은 전문예술인들의 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예술인들 역시, 단순히 기예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주민들과 예술을 매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관계에 접속'하는 것이다.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접속은, 경쟁적이며 상업적인 승자독식의 문화예술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건강한 예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예술터전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을극장은 이러한 커뮤니티 베이스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매개의 역할, 허브

의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 같다.

3. 기획자 : 기획자를 기획한다

네트워크 기획

마을 주민들에게는, 가깝고 문턱 없는 극장, 내가 직접 설 수 있는 무대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욕구가 있다. 문화예술 영역의 기획, 그것도 극장이라는 전문적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기획이라면 그 나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성미산마을극장의 무대가 이미 전문예술인들만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듯이, 그 기획 역시 주민들이라고 못할 바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획’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즐거운 생일이벤트를 위해 궁리하고,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의미 있게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어린이집 송년잔치를 함께 의논하고,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오히려 이러한 일상의 기획력은 주민관객과의 공감도를 더욱 높일지도 모른다. 무대를 구경하거나 무대에 서기보다는, 무대 그 자체를 기획하고 싶은 욕구를 극장은 수용하고 싶다.

이미 극장에서는 주민들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주민이 개관기념축제의 영화제를 기획하고, 미술전시를 기획하며, 오페라 마실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물론 이들은 이 분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다. 이들의 활약은 이미 개관기념축제에서 증명되었다. 이른바 ‘네트워크기획단’이다. 당시 52일에 걸친 프로그램은 극장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극장의 인력이나 재정 형편상 스스로 준비할 규모가 아니었다. 성미산마을을 잘 알고 있고, 성미산마을극장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을 안팎의 예술인들이 모여 협동기획하고 진행한 것이다. 극장이 스스로 무엇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놀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맡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극장과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의 적극적 매개자

하지만 조금 확장하면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없더라도, 개인

의 취향과 경험 그리고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기획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극장이 개관 이래 한 순간도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온 화두가 '지역사회 주민과의 소통'이지 않았던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궁금해 하면서도 그것을 물어보고 알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야말로 말로만 화두를 쥐고 있었던 셈이다. 어쩌면 이에 대한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극장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들(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보라고' 부탁한다면, 그야말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민기획자들을 위하여 '기획자교실' 같은 소정의 단기교육과정을 준비해보고 싶다. 기획자교실의 수료기획전을 그 등용문으로 삼아 실험해 보면 어떨까? 그밖에도 주민 콘텐츠 공모제, 극장의 기획회의에 주민 초대하기 등 가벼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겠다.

4.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연결

성미산마을은 그 출발의 특성과 마을 형성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와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이 경계는 때로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운 문턱이 되기도 한다. '커뮤니티, 공동체'라 명명하는 순간 바로 그 경계가 생기는 것을 어쩌겠나만, 이 경계가 단절이 아니라 교류와 소통의 지점이 되면 좋겠다. 경계에는 갈등과 어수선했음이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조 역시 생기는 것 아닌가? 새로운 시도와 창조는 바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생기는 것임은 물론이다. 극장이 처음 생길 때, 이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경계에 선 공동의 놀이터'라 명명한 바 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에 '설득과 이해'보다는 '놀이와 공감'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바랐고, 극장이 바로 그 놀이와 공감의 장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마을극장으로서의 성격과 동력은 주로 성미산마을이라는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와 쉽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극장이 '폐쇄적이다, 문턱이 있다'는 불평과 나무람이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놀아야겠다. 우선은 지역의 아이들과 어울려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아이들의 부모와도 어울리기

쉽지 않을까. 지역사회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조손가정, 외부모가정 등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을 긍정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싶다. 예술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이든 노래든 그 또래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취향에 맞추어, 아이들이 또래친구들과 함께 부대기고 어울리며 작업하는 예술활동을 기획하려고 한다. 물론 작업의 결과는 극장무대에서, 많은 지역사회의 어른들과 친구들의 갈채 속에서 발표될 것이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며, 이웃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극장이 지역사회와 노는 방법일 거다.

5. 마을간 교류의 매개

극장을 지어 1년 동안 놀아 보니, 이런 극장이 전국 방방곡곡 동네마다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동네 마을극단 <무말랭이>가 창작극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여러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공연하고, 경상도 시골마을의 합창반 아이들이 우리 극장에 들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나아가 먼 나라의 오지 마을과 서로 동아리를 초대하며 오고가는 그런 꿈같은 일을 상상해본다. 우선은 우리 극장에 다른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아보자. 형편이 되면 다른 마을에도 방문해서 공연을 하자. 꼭 극장이 없으면 어떤가. 별이 좋은 날 하루 잡아서, 길거리에서, 마을회관 앞에서, 아파트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아니면 관리사무소 앞이라도 좋다. 이렇게 오고가다 보면, 한 하늘 아래,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가 되는 이웃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2010년 2월 20일, 성미산마을극장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성미산 동네연극축제>는 이러한 시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울과 안산, 대전 등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연극동아리들이 성미산마을극장에 한 데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돌아가며 펼친다. 올해가 벌써 3회째이다. 아이들, 청소년,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등등. 그 세대와 계층도 각양각색이다. 각기 나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만남의 인연을, 관계맺기의 색다른 방법을 즐기며 발

견하였다. 진정 성미산마을극장은 ‘이 마을, 저 마을, 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는 공동의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VI. 마을기업의 시대, 호혜적인 생활관계망

최근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하고, 심지어는 부처간/지역간 경쟁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업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과 정책효과가 잘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본연의 목적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에서 그 대안으로 ‘Community Based’, 즉 ‘커뮤니티-지역사회 밀착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Community Business’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밀착화의 과제는 그동안 강조되어 오던 ‘수익성과 고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즉, 시장 일반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의 구축’이라는 지점을 경유할 때 비로소 그 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

마을일이 다 그렇듯 마을기업들이 처음부터 기업의 형상을 하였거나 기업을 의도하고 시작되지는 않았다. 정말 몇몇 주민들이 아주 소박하게 동아리처럼 시작했다. 그러다 일이 안정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을 좀 더 책임 있고 규모있게 할 필요가 생겼다. 그제서야 전담 활동가를 만들게 되고 활동가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과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서 서서히 ‘기업’의 꼴로 변모해왔다. 활동주체들의 모습도 ‘동아리 모듬’에서 ‘담당자

와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지금 마을은 이곳저곳에서 각개약진하며 진행되어온 다양한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신규활동은 여전히 동아리 모습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활동이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갈 뿐 아니라, 마을 내부에 그치던 활동이 손쉽게 지역사회로 열려가고 있다. 반면 소소한 즐거움으로 시작된 활동이 부담스런 일이 되기도 하고 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과제가 던져지기도 한다.

사회적 필요와 협동적 해결,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마을에서 하는 일은 물론, 마을기업 역시 예외 없이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육아, 교육, 먹거리, 생활필수품, 놀이와 소통 등 어느 것 하나 도시에서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느끼지만 시장에 가보니 마땅한 해결이 없다. 있다 해도 지나치게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국가를 쳐다보니 국가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다. 어떻게 하나?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결국 절실한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직접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된다. 엄두가 나질 않는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공동의 필요를 느낀 여럿이 협동하면 뭐든 가능한 것이다. 한 번의 성공적인 협동은 또 다른 협동을 시도하게 한다. 그러나 이 협동이 오히려 번거로울 때가 많다.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할 때가 많을 정도로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의 경험은 협동의 성능을 높이고 결국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시장과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미산마을의 역사이다. 성미산 마을기업의 핵심이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치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창업 제안'→'출자자 모집'→'출자참여'→'운영진 참여'→'소비참여'] 라는 협동조합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제도와 활동문화를 정착시켜왔으며, 지역사회의 호혜적인 생활의 관계망을 엮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미산마을기업의 협동조합적인 운영원리를 살펴보면서,

마을기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십시일반의 출자, 조합원이 모두 주인이다

출자란 협동조합이 창업에 필요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우리민족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자원조달의 방편인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구좌당 얼마를 정해서 참여를 원하는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구좌를 든다. 즉 한 구좌만 들 수도 있고 10 구좌,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의결권은 1인 1표다. 주식회사제도가 소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주식회사 제도가 10% 미만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과점적 지배의 비밀이 바로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이고 보면 협동조합에서의 1인 1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편 출자는, 대표적인 비영리 자원조달 방법인 '기부'와도 다르다. 즉, 기부와는 달리 심리적 저항선이 낮다는 점이다. 즉, 출자는 탈퇴하면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잠시 맡겨둔다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출자를 하고나서 협동조합의 참여하거나 이용하면서 그 쓸모를 직접 체험하게 되므로, 웬만해서는 탈퇴하는 일이 드물다. 출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고, 조합원은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며,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마을고용의 힘,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출자자 모집이 되고 나면, 총회를 통해 일꾼을 선출한다. 조합원 중에서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자임하고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정한다. 즉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스스로 나서기 멋 적으니 자천타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마을의 많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로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의 육아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박봉이라도 회사를 접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창 손이 많이 갈 아이들이 눈에 밝힌다. 회사를 접고 들어앉아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크면서 여유가 생기지만 회사 복직은 여의치 않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마을살이가 눈에 들어온다. 근질근질하기도 한다. 슬슬 관심이 생기고 슬쩍 참여할 마음도 난다. 이때 다른 엄마들이 부추기면 마지못해 밀리듯이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 보통

이다.

마을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 좋다. 아이도 언제라도 엄마가 일하는 곳에 들러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 좋다. 비록 활동비는 적지만 전에 회사 다닐 때처럼 심리적으로 뻘세거나 하지 않아서 좋다. 더욱이 마을 이웃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렇게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생협, 극장 등등 마을의 여러 활동에 고용되어 일하는 주민이 얼추 150명이 넘는다. 이들이 마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공동체는 백수가 지킨다 하지 않던가. 오늘날 백수라 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주민과 주부가 대표격이다. 그리고 보면 바로 마을고용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항시 마을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플뿌리 경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한다

마을기업의 주된 이용자(소비자)는 조합원들이다. 필요해서 동참했으니 당연 단골 이용자이다. 물론 조합원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열려있다. 언제라도 길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웃이 만들어 파는 아이스크림, 춤 잘 추고 노래 좋아하는 민수엄마가 만들어주는 동네부엌 반찬, 성미산어린이집 부모들이 나서 만든 성미산밥상의 유기농밥... 우리는 당연 그냥 믿는다.

동네부엌의 생산자가 작은나무의 소비자이고, 작은나무의 생산자가 생협의 소비자이고, 생협의 운영자가 성미산밥상의 소비자이고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뭘가를 공급한다. 마을에서 '내부자거래'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이루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다. 마을기업의 성장지표는 이런 내부자거래의 밀도라 할 수 있다. 마치 들풀들이 땅위에서는 제각각 따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치 아래 땅 속을 보면 그 뿌리들이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풀이 가지는 생명력의 비결인 것이다. 마을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기업은 하나의 마을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함께 들풀처럼 서로 얽히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수익성의 허구와 'zero-손익'

사회적기업에서 수익성은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 수익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가 된다. 복지가 '밑 빠진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럴 것이니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즉 본말이 뒤집히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일반 기업처럼 과도하게 '물질적이고도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여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와 미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시장논리에 맡겨 두면 취약성으로 인해 건디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기업들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던가? 즉 수익성의 곤란이 충분히 예상되나 비시장적인 틀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적 기업의 당초 설립 의도가 아닌가 말이다.

성미산의 마을기업들은 거의 '손익 zero'이다. 잉여가 거의 없다. 사실상 '똥똥'하기도 벅차고, '똥똥'이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레생협처럼 연매출이 50억이 되는 대규모 마을기업도 zero 손익이다. 잉여가 나올 틈이 없다. 워낙 매출이 익이 낮기도 하지만 영업 수익이 나와도 마을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사용하다 보니 잉여분이 남을 틈이 없다. 신규 마을기업에 기관출자를 하거나 마을축제에 기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교육활동 등에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수익성의 명제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공공적 서비스가 뒷전이 되고 수익성에 매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협동조합, 호혜적 생활관계망의 토대이다

우리마을의 마을기업은 대부분 협동조합의 원리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하지만 그 규모나 성격은 제각각이다. 조합원을 수로 보면 두레생협이 5,000가구인 반면, 동네부엌은 8가구이다. 성미산밥상과 작은나무가 100명 내외이다. 출자금 역시 생협이 3만원이고 다른 마을기업은 5만원, 10만원 등이다. 반면 동네부엌은 8명의

마을엄마들이 각기 500만원씩 출자해서 설립되었다. 작은나무 역시 5명의 엄마들이 시작했으나, 현재 100여명의 소액출자자로 확대되었다. 이렇듯 각기 형편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운영방법을 채택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재물을 모으고 ‘품앗이’로 일을 나누어 협동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돈이든 품이든, 여럿이 함께 나누면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수월하게 풀려가고, 그 속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생활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해결을 궁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다. 이게 바로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다. 바로 마을이다.

VII. 마을살이의 동력, 자발성

마을살이, 집단적인 학습의 터전

마을살이는 마을주민들의 자발성에 따른 현상이고, 마을을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 역시 자발성이라면, 그 자발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발성은 왜, 어떻게 생기고 또한 작동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필요와 집단적 협동이다. 필요가 자발성의 필요조건이라면, 협동은 충분조건이 된다. 이 두 필요/충분조건의 충족은 마을주민의 집단적인 학습과정을 경유하며 더욱 더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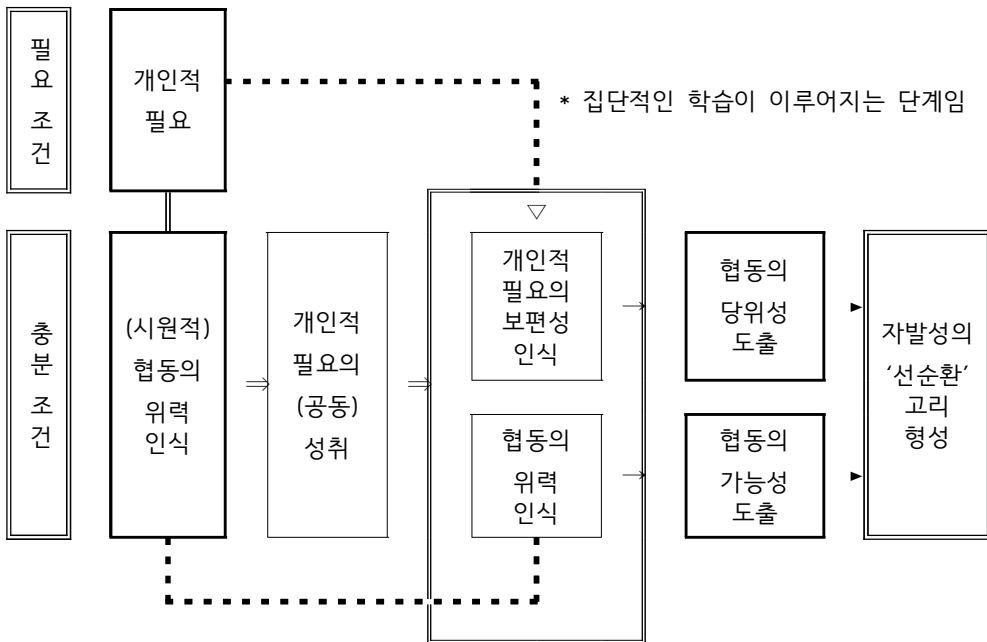
필요조건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이다. 물론 이 필요의 충족을 욕구하는 개인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개인이다. 따라서 필요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필요로서,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건강한 먹거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차원의 필요들인 것이다. 또한 이 필요는 국가와 시장에 실망한 필요, 국가와 시장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필요이다.

충분조건은 협동이다. 엄밀히 말하면 협동의 위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단 협동의 위력을 인식해야만, 그는 자발적인 협동의 실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실행된 협동이 성공하여 개인의 필요가 충족될 때, 비로소 그 협동의 위력을 경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즉, 개인적 필요라는 필요조건과 협

동의 위력 인식이라는 충분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협동이 자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일단 협동의 성취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개인적인 필요가 다른 사람들도 욕구하는 필요라는 사실을 즉, 필요의 보편성을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협동의 성공적 경험은 협동의 위력(효과)을 역시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정하게 해준다. 전자는 필요의 보편성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고, 학습자에게 협동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후자는 협동의 위력을 학습하는 것이며 이는 협동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학습을 통하면서 학습자들은 이후에도 새로운 협동의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자발성의 지속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된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자발성의 필요충분조건



이러한 협동의 순환적 누적은 협동의 수준과 협동의 성공가능성을 계속 높이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마을차원의 협동적 자발성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밖으로는

‘연대’의 논리로 확장되고, 안으로는 미시적인 협동과 자발성의 순환에도 적용된다.

집단적 학습과정과 민주시민교육

또한 이는 비공식적이면서 집단적인 학습의 과정을 보여준다. 보통 교육이라 하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성미산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학습에서는 교육자가 따로 없으며, 마찬가지로 학습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피교육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주민들이 생활이라는 일상의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협동의 위력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단적 학습의 효과는 개인들의 인식상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학습에 참여한 주민들 간의 협동적인 관계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낳는다. 또 이 관계의 성장이란 관계맺기 능력 즉, 소통의 태도와 방법에 관한 학습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 점이 바로 ‘집단적 학습’이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 여겨진다.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란 민주적 가치의 ‘이해’를 넘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인 태도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이니 말이다.

2012.06.14 (7.26 탈고)

<2강>

공동체 운영원리

- 알기, 키우기, 살기

박정이 오방놀이터 대표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도로디 로 놀트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적개심 속에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비웃음 속에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공명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아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오방놀이터

2/12

알기

의기소침, 죄책감, 후회



 오방놀이터

3/12

알기

자신의 본능[?]에 귀 기울이기

 오만능이타

4/12

알기

아이의 필요[?]에 반응하기

 오만능이타

6/12

키우기

솔직하게 소통하기


 오만능이타

6/12

키우기

긍정적인 관계 맺기

 오바둥이터

9/12

키우기

표현의 안전지대

 오바둥이터

9/12

키우기

개입의 안전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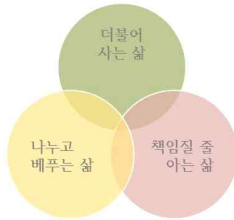
 오바둥이터

9/12

살기



살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고자료>

일본의 마을공동체 아만토의 운영원리¹⁾

유창복(bokk) 기자

지난 여름,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로 두 구간 거리에 있는 나카자키초의 작은 동네를 일 주일간 다녀왔다.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성미산마을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10여 명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미산마을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홍대 앞 독립예술가들과 성미산마을과의 유쾌한 만남의 가능성을 보았다. 총 3회로 나눠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자 말>

지난 여름,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전철로 두 구간 거리에 있는 나카자키초의 작은 동네를 일 주일간 다녀왔다.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성미산마을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10여 명의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미산마을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홍대 앞 독립예술가들과 성미산마을과의 유쾌한 만남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 아만토

간사이공항에 내려 전철을 타고 오사카 역에 도착했다. 걸어서 10여 분이면 나카자키초(中崎町)에 자리잡은 아만토마을에 도착한다. '도심에 무슨 공동체가 있을까' '성미산마을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를까' 궁금해 하며 마을을 향해 걸었다. 큰 길 뒤에는 작은 안길들이 나 있고, 그 좌우로 일본 특유의 작은 2층 주택들이 늘

1) 본 원고는 2011년 11월 8일, 9일, 14일자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아만토마을에 가다①②③]으로 연재된 기사입니다.

어서 있다. 골목에 유난히 화분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사는 성미산마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었다.

아만토는 한자로 천인(天人).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아만토마을은 2001년, 당시 120년 된 2층짜리 옛날 주택을 개조해 카페 '살롱 드 아만토(아만토카페)'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 카페를 거점 삼아 인근의 작은 점포들을 개보수해 여러 곳에 가게를 냈다. 대략 2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독립영화 전용 극장과 전용 공연장(천연예술연구소)도 만들었다. 극장과 공연장 바로 옆에는 작은 바(Bar·슈카)가 있어서 영화 보고 나서 차나 술을 한 잔 할 수 있게 했다.

이곳 아만토마을의 인테리어 원칙은 '리사이클링(재활용)'이다. 주변에서 버려진 가구들과 폐건축 자재들을 끌어 모으고, 공사 과정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이 가져다준 것들로 내부를 채웠다. 걸보기에는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왠지 정감 있고 부담이 없다. 그 밖에도 갤러리, 채식 레스토랑, 접골원, 점성치유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서점과 라디오방송국, 게스트하우스와 기숙사도 운영한다. 지역의 이웃들을 위한 강좌가 늘 열리는데 영어, 스페인어 등의 어학강좌나 서예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면접관이 구직자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마을

50여 명에 달하는 아만토마을의 구성원들이 이 가게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는지, 먹고 살 수 있는지 궁금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점포 모두 흑자를 내지는 못한단다. 아만토카페가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 가장 오래 됐고 아만토마을 네트워크의 중심이니 그럴 만했다. 영화관은 여전히 적자고 아마 앞으로도 흑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곳에서 영화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바라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흑자든 적자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궁금했다.

아만토마을 나름의 수익배분원칙이 있었다. 매출이 100이면, 30%는 재료비·임대료 등의 원가로, 30%는 인건비로, 10%는 점장의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 30%를 순이익으로 잡는다. 순이익으로 잡은 30% 중에 1/3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교육·환경·노인·아프리카 아동백신·동북부 지진피해 지원 사업 등에 기부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기부할 곳을 정할 때는 소비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고 한다. 즉, 아만토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순환하는 데 기여하는 소비'를 실천하도록 하는 셈이다. 최종적으로 남은 20%는 시설보수자금으로 쓰인다.

인건비로 사용되는 매출의 30%는 점포의 점장이 결정한다. 점장은 점포의 운영과 직원의 고용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영상의 판단과 실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즉, 점포별 독립채산제와 점장 자율책임운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장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그동안 다양한 실험과 진통 끝에 나온 방법이라고 한다.

한편, 점포의 스태프가 되기 위해서는 점장의 면접을 거친 뒤 52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는 고용될 점포는 물론 아만토마을이 운영하는 점포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하지만 말이 면접이지 사실상 아만토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아만토를 면접하는 것이다. 아만토의 점장은 가입 희망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정은 가입 희망자가 한다. 참여하기 위한 탐색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뭔가 결정할 때는? 모두 함께 머리 맞대고 결정

아만토마을 전체의 일은 어떻게 결정할까? 아만토마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전체회의의 구성이 좀 색달랐다.

우선 전체회의는 '공동경영자-공동운영자-스태프' 3단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서 아만토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한다. 여기서 스태프는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동운영자와 공동경영자만이 1인 1표의 결정권을 가진다. 의사결정은 아만토점포 단위 의사결정과 아만토마을 단위의 의사결정구조로 '이원화'돼 있다.

스태프, 즉 아만토마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유급 스태프이건 무급 스태프이건 아만토마을의 네트워크에 참여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만토마을의 주민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연히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공동운영자의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여하려면 1주일간 최저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스태프는 물론 공동운영자 역시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각 점포의 대표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집담회(여럿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같은 형식이다. 성미산마을의 마을회의와 비슷한 회의이다. 이렇듯 아만토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는 각자의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마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각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전체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준, 불새마을의 촌장!

준은 아만토마을과 같은 공동체에 대해 10대 후반의 청소년시절에 어렴풋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20대 청년시절에 그는 체육을 전공했다. 그때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하자는 취지로 '상호협력회'라는 대학 내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회로 나와서는 우리 세대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 그는 위아래 세대와의 연대와 협동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동산 컨설팅회사에 다니던 친구를 만나 색다른 제안을 받게 된다. 호리에 지역에 있는 건물 활성화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호리에 지역은 그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온 아메리카무라(村)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던 때였다. 매각도 임대도 불가능해진 건물을 예술가들에게 헐값에 임대해줌으로써, 건물주는 불황을 통과하는 시간을 벌고자 했다.

준은 흥미를 느끼고 수락했다. 방이 52개나 되는 건물이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차계약을 맺고 주변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다. 작업실이 아쉬웠던 젊은 예

술가들은 앞 다투어 몰려들었고 이 건물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각 층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입주시키고 장르 간의 협동 작업을 유도하면서 거리축제를 기획하였다.

호리에 거리는 젊은 예술가들로 북적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 동안 준은 '불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건물의 촌장으로 불리며 총기획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건물주는 임대계약이 끝나자 재계약을 거부한다. 예술가들이 북적이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바로 건물을 매각해버린 것이다.

성미산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홍대 앞 사정과 매우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홍대 앞에 젊은 독립예술가들이 북적이고 젊은이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으면서 음식점, 술집, 다양한 점포들이 속속 늘어난다. 인근 건물의 임대료는 치솟고, 정작 예술가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작업실을 유지할 수가 없어, 하나둘 쫓겨나 성미산마을과 같은 외곽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준은 값진 교훈을 얻게 됐다고 한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 좋은 일을 한 것인가, 결국 내가 고향을 망가뜨린 것은 아닌가?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기업의 자본에 기대서는 안 된다. 예술가들 스스로 자립적인 기반을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다시 마을에서 시작한다

준은 나카자키초로 발길을 돌렸다. 나카자키초는 도심 한복판이지만, 개발이 정체되어 오래된 일본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싼 임대료로 빈 가게 하나를 얻는다. 그리고 아만토마을의 시초가 된 아만토 카페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때 공사 가림막을 둘러치지 않고 안이 다 보이게 하고, 지나가는 동네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다고 한다. "뭐하는 거냐?"고 물어오면, 퍼포먼스를 한다며

망치를 건네주었다. 주민들은 신기해하면도 망치를 받아들고 망치질을 해보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공사도 무척 오랫동안 천천히 했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동네에서 주워다 썼고, 버리는 가구나 허문 집의 폐건축자재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공사를 준 혼자서 했으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사용하였다. 이 오랜 공사를 지켜보던 동네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뭐인지 묻고 뭐든지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가게의 가구들은 모두 모양이 제각각이다.

지역사회와 가까이 하면서 동네의 아이들과 어르신과 살갑게 지내면서 생활의 지혜는 물론이고 물심양면 다양한 지원을 얻고 나누며 살아간다. 이는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생존과는 아주 다른 삶의 감수성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만토마을의 자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 거다.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아만토마을의 자립문화, 지역통화와 1일1선제도

아만토의 자립적 생활의 기초에는 독립채산제를 보완하는 지역통화가 있고, 지역통화를 보완하는 1일1선(1日1善)제가 있다. 아만토마을에는 그 마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인, 아만토화폐가 있다. 점포에서 근무하는 스텝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레슨이나 워크샵의 수강료, 공간대여료 등으로 아만토화폐가 사용된다.

그래서 아만토마을의 주민들은 현금(중앙통화로서의 엔화)이 없어도 끼니를 해결하고, 차와 술을 마시고,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아만토마을의 주민은 서로 소비하면서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른바 아만토마을 내부의 순환적인 자급자족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굳이 엔화가 없어도 아만토 내에서는 필수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아만토화폐는 다른 지역통화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 유효기간이 1개월이다. 지역통화가 발행된 지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없어진다. 이른바 '역이자'다. 쌓아둔다고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지역통

화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순환을 촉진시킨다.

한편 지역통화제도와 함께 1일1선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루에 1번 선행하자는 취지이고, 1번 선행(善行)을 하면 1아트(art)를 지급한다. 선행은 아만토마을에 유익하고 고마운 일을 한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결국 아만토화폐와는 달리 아트는 교환가치가 없는 무상의 증표이다. 물질이나 돈을 대가로 하지 않는 공동체적인 선행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언젠가 동네의 노인으로부터 다급한 도움을 받고는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하려 하자, 그 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며 극구 사양을 하더라. 돈이나 물질을 바라지 않는 선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적 선의를 마음으로 보상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아트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트는 아만토마을에서 신용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열린 네트워크, 느슨한 관계가 있는 아만토마을

아만토마을에서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기 점포를 운영하고 싶은 20대 청년, 동네 주민들,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주머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와 방식으로 아만토와 인연을 맺고 활동한다. 활동의 방식도 유급근무를 하든, 자원봉사로 참여하든 스스로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것이 아만토마을에서 불문율로 통하는 원칙이다. 아만토마을에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으며,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결코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신입회원 면접이 있지만,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절차다. 오히려 오는 사람이 아만토마을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성미산학교에서도 교사를 선발할 때 전형위원이 면접을 보지만 상호면접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다. '맞선보기'인 것이다. 그래서 교사응시자의 질문을 보장한다.

그러니 아만토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유동이 잦다. 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방해가 될 법도 하다. 좀 익숙해질 만하면 헤어지게 되니 맥이 빠질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생활의 호흡을 맞춰가기가 쉽지 않고, 또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열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열린 관계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가져다준다. 마을에 사람들의 유동을 엄격히 통제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어렵다. 마을에서 다양성은 풍부함의 원천이다. 풍족한 자원을 돈이나 조직의 형태로 따로 비축하고 있거나, 권력으로 동원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동'은 바로 생활의 직접적인 자원이다.

둘째. 열린 관계는 단기적으로 보면 관계의 지속성을 얇게 해 공동체 안정감을 약화시키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안정성과 지속성을 쌓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네트워크의 연결망들이 확장되고, 연결 관계의 위치 변화가 자유롭고, 관계의 강도가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열린 관계에서만 가능한 네트워크의 작용이다.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아만토마을

아만토는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 공동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만토는 일본 동북지역의 지진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버스투어를 몇 차례나 조직했다. 지진피해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일본 동북지역의 조선학교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지역 중에서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민간단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스스로 찾아 복구활동을 벌였다.

아만토마을의 주민들은 외국과의 예술교류도 자주 진행한다. 여력이 생길 때마다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지로 아만토마을 예술가들이 공연하러 다닌다. 이런 국내외 공연활동을 다니면서 신세진 사람들도 많고, 아만토마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당

연하게 여긴다.

성미산마을과 아만토마을의 차이점은 '가족'

아만토마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미산마을과 닮았다. 우선 그들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다. 카페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영화관과 공연장을 만들어 직접 운영한다. 둘째, 마을주민의 자격이 특별히 없다. 접속하면 바로 주민이 된다. 접속하는 만큼 자신의 마을이 된다. 그 누구도 접속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지리적으로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프라인에서 연결되는 커뮤니티라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점을 따져보면 대번에 드러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이다. 성미산마을은 아이들의 육아를 협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고, 그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마을살이의 다양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가족'이 마을의 중심적인 구성단위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연령대가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령대다. 반면, 아만토마을은 20~30대가 대부분이고 또한 거의 미혼상태다. 40대와 50대의 주민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기혼 가정은 한 두 가구뿐이다.

궁상스럽지만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부족, 아만토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좀 밋밋하고 단순하다. 나는 아만토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여러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퍼뜩 <가난뱅이의 역습>이 떠올랐다. 이 책에는 일본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류사회의 진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탐사한 사람들, '하지메'들이 등장한다.

아만토마을 사람들과 하지메는 '궁상스럽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진장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만토 카페를 보아도 그렇고, 백 년이 넘은 건물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보수한 영화관과 공연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동네에서 버려진 폐건축자재와 가구들을 주워 만들었으니 그 꼴이 말 그대로 궁상스럽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 궁상스럽다거나 어떻다거나 하는 말은

그들의 기준에 적합한 언어는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내, 아만토마을 사람들은 하지메들과는 다른 부족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하지메들이 게릴라 같은 유목민의 유전자를 가졌다면, 아만토들은 정주(停住)적인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아만토들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에 밀착하려 애쓴다. 지역의 아이들과 소통하고, 동네의 어르신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와 공감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해마다 열리는 마을축제에서 기획이나 스태프 역할을 자진해 맡는 등 마을의 굵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의식주는 물론 놀이와 문화를 마을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

젊은 네트워크와 성미산마을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

성미산마을은 이른바 386세대 주축이 돼 시작된 마을이다. 공동육아와 대안학교를 비롯해 마을산인 성미산 지키기와 다양한 마을기업 만들어 운영하기까지... 그들이 지나온 과정은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이다. 그들은 절차적 수준이지만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세대다.

한편, 그들은 한국경제 산업화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누린 세대다. 최소한 취업 걱정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로서 중산층의 신화를 꿈꿀 수 있었던 세대였던 것이다. 결국, 성미산마을은 386세대가 누린 '민주화의 정치적 경험'과 '중산층 신화라는 경제적 혜택'을 밀친 삼아 '대안적인 삶의 터전으로 마을'을 꾸려온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미산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색다른 부족이 서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30대의 연령에 미혼인 젊은이들이 마을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이 신기한 듯, 재미있다는 듯 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조심스레 접촉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이내 실망하고는 "여기는 우리가 놀 자리가 아니야"라며 포기하고 떠나기도 했다. 흥대 부근의 독립예술가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들 색다른 부족이 성미산마을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과 함께할 길이 무엇인지'가 고민된다. 나름의 생존의 길을 탐색하는 젊은 이들이 성미산 마을에 제대로 정착하고, 뿌리내려 살기 바란다. 그들을 볼 때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고 갈 땅의 일정 부분은 우리 세대가 이미 써버린 땅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난 아만토마을에서 어렵듯하게나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봤다. 개별로서 마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문화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장으로 마을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미산마을의 마을살이가 '씨실(가로방향으로 놓인 실)'이라면 이들의 네트워크가 '날실(세로방향으로 놓인 실)'로 가로질러 엮혀서 서로에게 파고들어 엮힐 때 비로소 함께 공존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는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강>

가정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세상으로..

김소영 성대골어린이도서관장

처음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은 것은 2009년 11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쌍둥이 두 딸을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고,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운영위원장님이 점심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자리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시민단체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희망동네) 사무국장과 어느 정당 관계자 한 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간 주민 4명이 함께 했습니다.

처음 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들었을 때 느낌은 막연하고 뜬구름 같았습니다. 도서관은 너무도 공공의 영역에 있었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만들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으며 주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을 견학하면서 자신감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마을살이를 하면서는 직장을 다닐 때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한테 주어진 몫만 잘 해서 퍼즐처럼 넣으면 되는데, 마을 일이란 것은 집안 살림처럼 해도 바로 티가 안 나고 끝임 없이 찾으면 할 일이 생기지요.

그렇게 마을에 도서관이 생기고 주민이 주도하는 가운데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마을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매 달 회비를 내는 회원이 200가정 이상으로 늘어나고, 운영위원 15명이 도서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겪게 되었지요. 한참 안전마을지도를 만든다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듯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이후 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원전사고.. 전북 부안이고향이라 핵폐기물 처리장 싸움으로 그 위험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도서관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

런저런 도전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을 주민들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문제의식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단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 달 반만에 녹색연합이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2011년 9월15일부터 시작된 에너지&기후변화에 대한 특강은 2013년 탈핵학교를 성대골에서 진행하기까지 강좌와 워크샵이 한 달에 2회이상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대골 활동가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핵발전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고 인근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행동하는 탈핵운동가(?)로 거듭났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하자고 하면 '이미 아끼고 있다. 내 돈 드는데 누가 낭비를 하겠냐', '그것 얼마나 된다고 한달 내내 플러그 뽑으며 신경쓰냐 그게 더 피곤한 일이라 건강에 해롭다'는 등 많은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전운동이나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요. 지난 겨울에 서울은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에너지 사용량도 급등하고 전력공급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성대골에서는 그 때 '블랙아웃'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만약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그것이 몇 일간 지속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것인가? 로 토론을 해 본 것이죠. 도시의 시스템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위기에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유소의 기름, 도시가스 공급, 먹거리, 난방 등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던 시스템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스템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태계 일원으로써의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면 좀 더 쉽게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대골은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이라는 꿈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마을'이란 단어도 어렵고, '에너지'없이 살수도 없는데 자립이라는 단어까지 붙이고 나니 무척 전문적이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좀더 친근한 단어가 없을까? 고민도 합니다만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한 방안을 찾고 고민하다 보면 지금보다 희망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미 자립마을로 향해 출발 했다는 것이니까요.

도시에서 적용해본 재생에너지

김소영 성대골어린이도서관장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 - 첫 번째 워크숍

동작구 상도3동에 위치한 성대골마을학교는 2012년 4월 18일에 개교한 방과후 대안학교이다. 15가정이 공동출자를 하고 17가정의 아이들 30명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여러 커뮤니티들이 공간을 빌려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난방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창고를 임대 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2012년 8월 21일 적정기술 워크숍을 시작으로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장치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해 보자는 성대골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녹색연합의 도움으로 적정기술로 겨울나기 워크숍이 마을학교에서 열렸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참여를 해 주셨고, 밤 11시가 넘도록 토론과 방법을 찾는 논의는 계속되었다.

도시환경에서 특히 일조량이 적은 마을학교는 재생에너지를 시도하는데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큰 성과 없이 끝난 워크숍! 그러나 포기는 이른다.



초소형베란다태양광 조립



실습태양열온풍기 체험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 - 단열공사



11월 5일부터 진행된 마을학교 단열공사는 에너지자립이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의뢰를 하면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에너지자립을 거론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나름대로는 공사 진행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교육을 통해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용을 해 볼 계획이었으나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다.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 - 태양열온풍기 설치



11월19일 태양열온풍기가 마을학교에 설치가 되었다. 5층건물에 2층에 위치한 마을학교에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랐다. 일단 마을학교는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옥상에는 교회에서 풋살장을 설치해 쓰기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5층에서 열기가 2층까지 내려오는 것도 고려했다. 또 도시에서 1층에 온풍기를 설치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

다. 그러던 중 팜택이란 회사에서 건물외벽에 온풍기를 설치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건물주와 논의 끝에 성사가 되었다.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 - 화목난로 설치

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화목난로였다. 도시에서 쉽지 않은 일이고, 마을학교 구조가 작업장 형태가 아닌 생활환경이라서 연료공급이나 연기 등 많은 우려가 있었다.



12월 22일 난로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불을 때던 날 그동안의 우려와 마음고생이 싹 사라졌다. 늦게까지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는지? 애들한테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겠어’ 하며 서로 감동을 나누었다.



성대골마을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

성대골마을학교에는 많은 견학팀이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체험과 겨울나기 체험담을 듣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산타축제와 송년회 등을 개최하였고, 다른 커뮤니티도 공간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탈핵학교와 기타교실이 운영 중이다. 연료는 인근 야산에서 땔감을 얻거나 마을에 목공소에서 제공해 주고 있고, 주민이 2년간 모은 나무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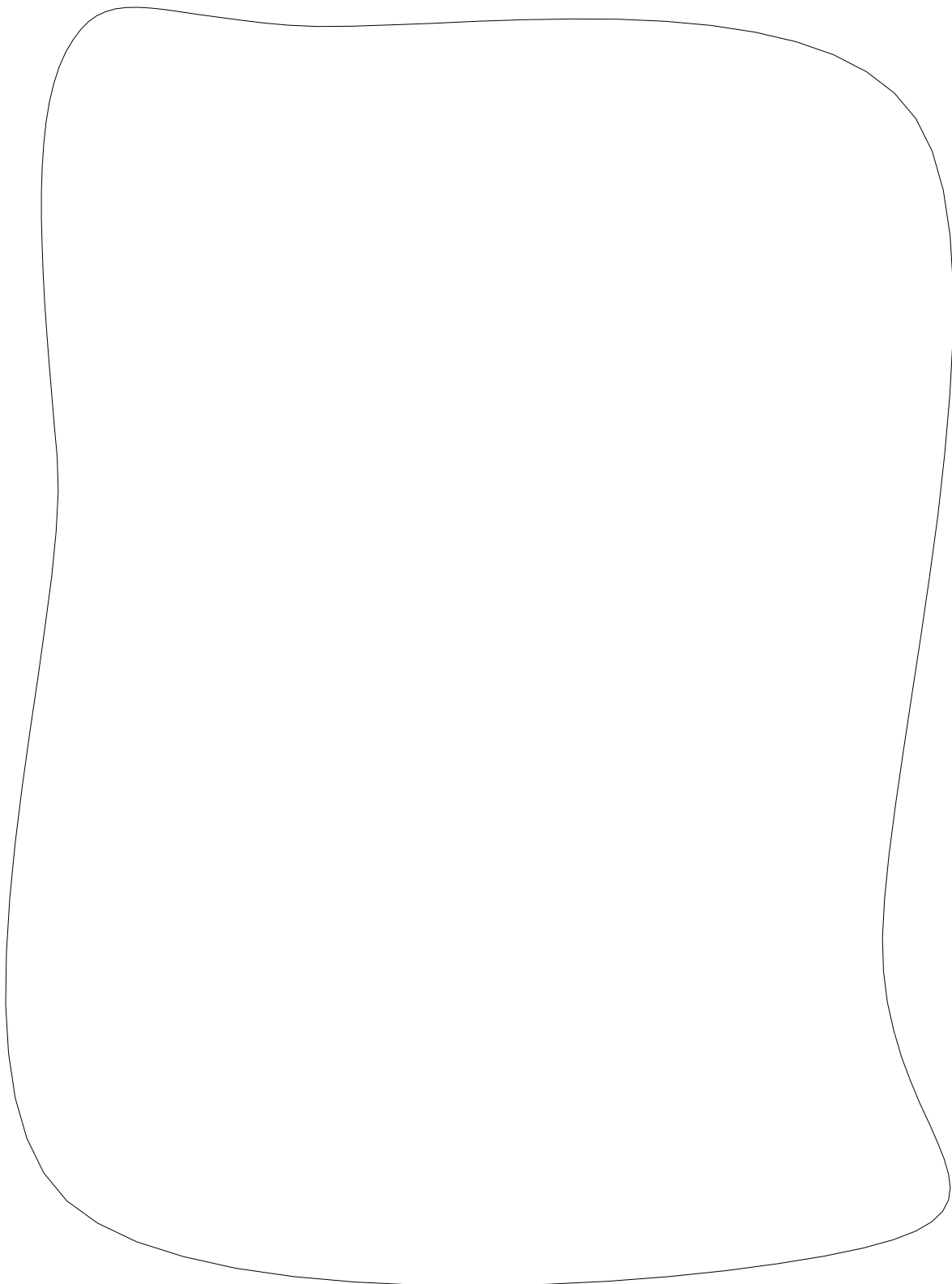
그렇게 성대골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5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도전으로 기억될 것이다.

<4강>

성미산마을에서 배운다

오방놀이터에서 놀자

관과 소통하기 : 공무원에게 듣는다



<5강>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NVC(Nonviolent communication)

호정애(me-hja@hanmail.net / 010-9124-9674)

1. 비폭력대화를 소개하며

NVC는 Nonviolent Communication의 약자로, 비폭력대화를 표시하는 세계의 공통어다. NVC와 '비폭력대화'는 같은 뜻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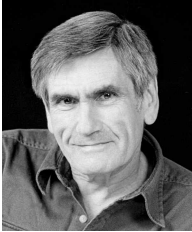
비폭력대화는 Nonviolent Communication(NVC)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며, 연민의 대화(Compassionate Communication), 삶의 언어(Language of life)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면서 진실하게 표현하여 상대방부터 협력적인 반응을 얻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대화 방법이다.

비폭력이란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바탕인 아힘사(Ahimsa: 불살생이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정신으로, 우리 마음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인간의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의 마음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사랑과 연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대화법은 마셜 로젠버그 (Marshall B. Rosenberg) 박사가 개발하였다.

비폭력대화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고대부터 있어온 것이며, 오랜 언어발달의 역사 속에서 현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많이 잃어버린 인간 본래의 언어이다. 이 대화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간단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로젠버그는 칼 로저스(Carl Rogers), 마틴 부버(Martin Buber), 장자, 간디(Gandhi),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마셜 로젠버그

마셜 로젠버그 Marshall B. Rosenberg(1934~)

- NVC 창시자, 임상심리학박사, 평화운동가
- 1960년대 인종차별폐지법이 시행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미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NVC를 개발 및 보급
- 1984년 CNVC(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 설립
- 세계 여러 곳에서 NVC 훈련과 국가 간 분쟁지역에서 중재자로 활동

2. NVC의 핵심을 보여주는 마셜의 이야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벽에 붙은 문구를 보았다

“ 십대들에게 : 모르는 사람과 말하지 말라.”

그 글의 의도는 분명히 큰 도시에서 집을 나온 십대들에게 그들을 노리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예로 포주들이 버스터미널에서 외롭고 지친, 겁에 질린 십대들에게 접근해서 계산된 따뜻함으로 우정과 음식, 지낼 곳,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머지않아 십대들을 매매춘으로 몰아맨다.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약탈적인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경고문을 보면서 대기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곧 힘이 되살아났다.

나이 많은 이주 농장 노동자가 오렌지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누런 종이봉투를 보아 막 점심을 먹은 것 같았다. 대기실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그 오렌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길을 의식한 그 사람은 곧 일어나 그 아이에게 걸어갔다. 아이에게 그 오렌지를 주어도 괜찮겠냐고 엄마에게 먼저 몸짓으로 물었고, 엄마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자 그는 오렌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오렌지에 입을 맞추는 다음 오렌지를 주었다.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으면서, 방금 그가 한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띄웠고 자기의 행동에 감동했다는 말을 듣고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에게 오렌지를 주기 전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내말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65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때에만 주라는 것입니다..”

"NVC의 핵심은 대화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의 변화이다."

- 마셜 로젠버그 박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마하트마 간디

3. NVC의 목적과 효과

가. 목적

- 우리의 본성인 연민으로 연결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한다.
- 자신의 욕구(need)와 상대의 욕구(need)를 모두 존중하여 깊이 공감한다.
-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화하여 함께 풍요로워진다.

NVC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 자질은 다는 사람에게 「향하는」마음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 상대의 존재와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그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존재의 반경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나. 보는 방식을 바꾸기

“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화가 난다면 나는 아직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혹은 아직 「내 안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부세계의 인상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내면의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루돌프 슈타이너-

How to Know Higher Worlds, 고차세계의 인식으로 가는 길.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는 것을 내안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연민하는 마음과 사랑의 씨앗을 돌보고 내면의 능력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러한 일깨움은 특히 나 자신과,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는 의미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평정심,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다. NVC 효과

- 자신이 하는 행동이 진정한 내면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 자기의 감정이나 내적 욕구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는다.
- 서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탁을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가 많아진다.
- 가족이나 직장, 주위 사람들과의 이해가 증진되고, 신뢰와 협조관계가 만들어져서 서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4. NVC의 주요개념

다음은 비폭력대화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개념 중 몇 가지이다. 비폭력대화에서는 이 개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사람은 가슴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을 즐긴다.

모든 사람은 같은 욕구(need)를 공유하고 있고, 그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욕구는 보편적인universal 것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욕구 차원에서는 갈등이 없다. 그러나 욕구충족하기 위해 어떤 한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고집할 때 갈등이 생긴다. 문화적 차이라고 말할 때도 그건 욕구를 충족하려는 방법의 차이일 뿐, 욕구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존중하거나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이 계속되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연민을 기본으로 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기르는 데 대한 의식과 그것을 위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힘들고, 오히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느낌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느낌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우리 느낌의 원인은 그 순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이다. 순간순간의 느낌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정신적 충격)나 자라면서 받은 사회적인 조건화에서 오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에서 영향도 받기도 한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사랑과 연민Compassion의 능력이 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서툴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미숙하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연민과 사랑의 능력을 기르는 것은 모두는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든, 내부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인 그 순간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항상 내면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

욕구 차원에서 연결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하나임(Oneness)을 경험한다.

5. 비폭력대화 방법의 두 측면과 네 요소

가. 솔직하게 말하기

-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 안의 움직임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표현한다.
- 내가 한 말이 내가 뜻한 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모두의 욕구가 평화롭게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한다.

나. 공감으로 듣기

- 자신의 생각, 선입견, 기대, 가정, 그리고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상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공감으로 듣는다.
-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로 상대가 자신을 표현했을 때도, 그 말은 그 사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비극적 표현일 뿐이며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It's not about me!)을 의식한다.
- 상대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상대가 충분히 이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주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결 방법을 찾는다.

다. 기린, 자칼 상징 소개

기린 Giraffe

기린은 육상동물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로 알려져 있다. NVC에서는 가슴에서 연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린을 상징으로 쓰고 있다. 기린은 또 키가 커서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초식동물로 평화롭게 살지만 공격을 받거나 어린 기린들을 보호해야 할 때는 크고 힘센 발굽으로 자신들을 지킨다.

자칼 Jackal

우리들 대부분이 자라면서 배운 습관적인 말의 상징으로 자칼을 사용한다. 그것은 관찰 대신 평가로, 가슴에서 나오는 느낌 대신 분석하고 비교 경쟁하는 생각들로, Need에 대한 의식이 없이 수단 방법에 집착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말들이다. 그리고 부탁보다는 강요와 명령을 하면서 불안, 두려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모두가 외로워진다. 우리들의 배움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에 감사하며 깊은 이해를 구한다.

라. 비폭력대화 of 두 측면과 네 요소

솔직하게 표현하기 Expressing Honestly	공감으로 듣기 Empathic List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가 한 말이 뜻한 대로 전해졌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생각, 선입견, 기대, 조언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상대의 경험을 존중하여 공감으로 듣는다.• 비판적이며 듣기 힘든 말로 표현했을 때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

관 찰 (observation) '평가'와 구별하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며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내가 ~ 을 보고(들었을 때)”	상대의 느낌을 일으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당신이 ~ 을 보거나(들었을 때)”
느 낌 (feeling) '생각'과 구별하기	
(말이나 행동)관찰한 바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하기 “나는 ~ 을 느낀다.”	관찰에 대한 상대의 느낌을 추측하여 표현하기 “당신은 ~ 을 느끼셨어요?”
욕 구 (need) '수단/방법'과 구별하기	
자신의 느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욕구를 인식 “왜냐하면, 나는 ~ 이 필요 (중요, 원)하기 때문에.....”	상대의 느낌과 감정 뒤에 있는 욕구를 추측하여 표현하기 “당신은 ~ 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 탁 (request) '강요'와 구별하기	
내 삶의 풍요를 위하여 긍정적, 구체적, 청유형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 연결부탁 “내말에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생각하세요)?“ • 행동부탁 “~ 을 해 줄 수 있어요?”	상대가 부탁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기 “당신은 내가 ~ 하기를 바라시는지요? ” “그래서 ~ 라고 부탁하셨군요.”

6. 활용 :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하여 듣기

※ 최근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있었던 한 때를 떠올려 NVC의 네가지 모델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네 요소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 말하는 사람

관찰 (observation) :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 -----평가와 구별

“ 내가 _____ 보거나, 들으니 ”

느낌 (feeling) :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생각과 구별

“ 나는 _____ 느낀다. ”

욕구 (need) : 느낌의 원인 -- -----수단 / 방법과 구별

“ 왜냐하면 나는 _____ 을 원한다.
(필요하다, 중요하다, 소중한 가치이다...)

부탁 (request) : -----강요와 구별

연결부탁 : “ 내 말을 들으니 어떻게 느끼는지요? ”

“ 제 말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

행동부탁 : (긍정적, 청유형언어, 구체적인 내용)

“ _____ 을 해 줄 수 있니? ”

▶ 듣는 사람 : 들은 대로 반영한다.

느낌말 목록 (Feelings List)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동받은, 몽클한, 감격스런, 벽찬, 황홀한, 충만한, • 고마운, 감사한 • 즐거운, 유쾌한, 통쾌한, 흔쾌한, 기쁜, 반가운, 행복한, 충만한 • 따뜻한, 감미로운, 포근한, 푸근한, 사랑하는, 훈훈한 정겨운, 정을 느끼는, 친근한, 그리운 • 뿌듯한, 산뜻한, 만족스런, 상쾌한, 흡족한, 개운한, 후련한, 든든한, 흐뭇한, 홀가분한 • 편안한, 느긋한, 담담한, 친밀한, 친근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차분한, 가벼운 • 평화로운, 누그러지는, 고요한, 여유로운, 진정되는, 잠잠해진, 평온한 • 흥미로운, 매혹된, 끌리는, 도취된, 열중하는, 호기심 있는, 몰입되는 • 활기찬, 재미있는, 짜릿한, 신나는, 용기나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당당한,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월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열정있는 • 흥분된, 두근거리는, 기대에 부푼, 들뜬, 희망에 찬, 환희에 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되는, 까마득한, 암담한, 염려되는, 근심하는, 신경쓰이는, 뒤숭숭한 • 무서운, 섬뜩한, 오싹한, 간담이 서늘한, 겁나는, 두려운, 진땀나는, 주눅이 든 • 불안한, 조바심이 나는, 긴장한, 떨리는, 안절부절못하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 불편한, 거북한, 견연쩍은, 곤혹스러운, 멧쩍은, 쑥스러운, 괴로운, 난처한,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찝찝한 • 슬픈, 그리운, 목메는, 애끓는, 먹먹한, • 서글픈, 서러운, 쓰라린, 울적한, 참담한, 한스러운, 비참한, 속상한 • 안타까운, 서운한, 김빠진, 애석한, 낙담한, 섭섭한 •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막막한, 쓸쓸한, 허한 • 우울한, 무력한, 무기력한, 침울한 • 피곤한, 노곤한, 따분한, 맥 빠진, 귀찮은, 지겨운,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좌절한, 힘든, 무료한, 성가신, 지친, 심심한, 질린, 지루한 • 혼란스러운, 당황스러운, 기막힌, 진땀나는, 멍한, 놀란, 아찔한, 얼떨떨한 • 민망한, 부끄러운, 창피한, 쑥스러운, 죄책감이 드는, • 화나는, 분한, 약오르는, 울화가 치미는, 억울한, 열 받는
<p>※ 이 느낌말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느낌말을 더 추가해보세요.</p>	

▶ **느낌과 혼동되기 쉬운 느낌이 아닌 것들**

강요당한	따돌림 당하는	위협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절당한	배신당한	의심받은	조종당하는
공격당한	버림받은	무시당한	학대받은
궁지에 몰린	오해받은	이용당하는	협박당하는

욕구 목록 (Needs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 신체/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 받음, 의존(생존과 안전),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이동), 운동 • 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interdependence)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배려, 존중, 상호성, 공감,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일관성, 안정성, 정직, 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흥, 유머 • 삶의 의미 기여, 공헌, 능력, 도전, 명료함, 발견, 보람, 의미, 기념하기, 인생예찬(축하, 애도), 깨달음, 자극, 중요성,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복, 효능감 희망, • 진실성 진실, 성실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 존중, 비전, 꿈 • 아름다움/평화/영성 아름다움, 평정함, 흥가분함, 여유,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초월적 정신적 자유 • 자기긍정(integrity)/자기 구현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authenticity), 개별성 존중, 자기존중, 자기신뢰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자신감, 자기 신뢰
---	--

※ 이곳에 있는 욕구많은 도움이 되고자 정리한 보조자료로서 검증된 분류방식이 아닙니다.

초 대

-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 -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거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무엇을 가슴 저리도록 동경하는거.
당신 마음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는거.

당신이 몇 살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사랑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서라면
바보처럼 보이는 것도 감내할 건지.

어떤 행성이 당신의 달과 자리를 잡고 있는거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자신의 슬픔 그 한가운데에 가본 적이 있는거,
삶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 두 팔 벌려 끌어안았는지 아니면
더 고통 받을까봐 두려워 움츠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이 고통과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나의 것이건 당신의 것이건, 그 고통을 숨기거나 흘려버리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이 기쁨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게 나의 것이건 당신의 것이건.
그리고 당신이 야생의 본래 모습으로 춤을 출 수 있고,
당신의 손끝과 발끝까지 그 환희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현실적이 되라고,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서.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자선에게 건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망시킬 수 있는
거.
배반했다는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신의 선념을 버리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선에게 충성할 수 있는지.

난 알고 싶어요.

매일 매일이 아름답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거.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서 자신의 생명의 원천을 얻을 수 있는거.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이 실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거.
그것이 당신의 실패건 나의 실패건.
그리고 호숫가에 서서 은빛 보름달을 향해 그래도 “yes”라고 소리칠 수 있는거.

당신이 어디 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비탄과 절망의 밤을 보낸 후에 뺨속까지 지치고 상처 입고도,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는거.

나는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거,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불구덩이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뒤로 도망치
거 않을 건지.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당신 내면에서 무엇이 당신을 거뎡하게 해주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거.
그리고 텅 빈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거.

<6강>

아이들과 상호작용

-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교육

호정애
비폭력대화 인증지도자
공동육아 현장교육지원전문가

1. 들어가며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것, 즉 교사가 되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며, 많은 정성과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한 세기 전보다 문명의 변화속도는 세배이상 빨라졌고 현대의 삶 자체가 많이 분주해졌다. 분주하고 바쁜 부모와, 아이들은 발달에 맞는 고유의 리듬을 빼앗긴 채 부모의 삶의 리듬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가고 있고 점점 가속도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전보다 존중받지 못하며,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온전히 세상에 열려있다. 세상과 하나이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자신을 돌보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완전히 열려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아름다운 본성인 사랑, 존중, 배려, 수용, 돌봄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이 요구된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 수용, 돌봄이 충분히 되면 이후 삶에서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꽃피우며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대해지는가에 자신을 표현할 때 존중과 배려 같은 아름다운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존중, 배려와 수용을 알고 실천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나 교사는 거의 없다. 부모도 완벽하게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대하는 양육자들은 그들 스스로도 돌아보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부모 혹은 교육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배움들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일어난다.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어른의 역할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충족된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충족된 정서경험은 주양육자인 부모를 통해서, 즉, 부모의 성격과 양육태도와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간단분류로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이 있는데, 이러한 기질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평생성격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어른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유아기의 충족된 정서경험은, 아이의 사회성과 발달적 측면, 즉 학습, 기억, 건강, 나아가 복지에 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기초가 된다. 정서적인 구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할 때 나중의 발달은 오직 충족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보상일 경우가 많다. 최근 이루어진 50여년의 연구결과들은 이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충족되고 안정된 정서경험은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자율성과 자존감이 높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충족된 정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생활속에서 부모와, 또는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어가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배우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이전에 우선 자기 스스로의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른이라도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자

2. 유아기 특성

① 모든 자극이 기억으로 남는다.

모든 생물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 태아시절의 경험도 기억으로 남지만, 이것은 태어나서 겪을 무수한 자극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영아기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때의 '기억한다'는 것은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된 경험들을 말하며 장기기억은 생후 12~18개월 즈음에 발달하는 해마체의 발달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만3세까지의 자극에 대한 경험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성격을 완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욕구가 충족된 기쁘고 행복한 기억은 삶의 자산이 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심리, 정서적으로 큰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기분 좋은 안락하고 기쁜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아이들은 감정과 느낌으로 배운다.

우리가 '느낀다'고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쁨, 슬픔, 쾌감, 분노, 놀라움, 공포, 혐오감의 7가지 기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능력은 주 양육자인 부모의 태도와 주변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온 몸이 감각기관 자체이다. 태어나서부터 몸의 감각과 느낌으로 뇌가 발달한다. 즉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고 성숙한다는 것이다. 갓난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 400g이었다가 돌전후로 1000g정도로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며,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생후 12개월 정도까지는 풍부하고 기분 좋은 자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감한 시기'이다.

뇌 생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뇌의 발달 부위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적기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애 첫 삼년에는 감각과 감정, 사회성을 관장하는 변연계(해마체와 편도핵)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와 연결된 행복감은 욕구가 충족된 느낌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불안과 공포, 불쾌감 등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느낌의 경험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호르몬이 뇌에 독으로 작용하여 손상이 되기 쉽고 기억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심장의 60-65%정도가 근육세포가 아니라 신경세포 전달물질임을 밝히고 있으며, 심장에서 생산되는 호르몬ANF(Atrial Neuriatic Factor)은 '감정두뇌'라고 불리는 변연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심장이 인간의 지성을 관장하는 주된 센터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인간은 가슴으로 생각한다."를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아기 때에는 기분 좋은 자극과 좋은 느낌을 많이 받을수록 뇌가 잘 발달하고 이후 세상에 잘 적응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기틀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어른들(부모, 교육자 등 주 양육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이다.

※ 유아시기에 잘 보살펴져야 하는 감각으로 일반적인 오감(촉각, 청각, 미각, 후각, 시각) 외에 생명감각, 균형감각, 고유운동감각, 촉감이 있다.

③ 아이들은 행위를 통해서 배운다.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또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배워나간다. 즉 아이들은 몸으로 직접 행위를 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며 배우게 되는데, 이는 우리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과 매우 다른 점이다.

우리 어른들은 행동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지점들을 미리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행동으로 옮긴다. 적어도 거의 대부분 그리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어른인 우리들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아주 많은 데,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것의 대부분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아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이 이미 만들어져서 고쳐주고 싶다면 '이

아이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부모는 생각해야한다. 또한 아이도 잘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잘 하고 싶어요~’하는 사인이기가 쉽다. 적어도 세 살이면 세달 정도 꾸준히, 다섯 살이면 다섯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가 보이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또한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④ 아이들은 모방을 잘 한다.

슈타이너는 교사를 위한 강의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말로서 남을 가르치고 다스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말을 듣고 배우지 않고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이를 모방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듣고 보는 것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행동의 이면과 마음까지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또한 가장 사랑하고 믿는 존재가 부모(주 양육자)라고 볼 때,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며 닮아간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단순히 생물학적인 유전요인으로 해서 부모의 겉모습을 닮는 것 외에, 부모의 정신과 내면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면, 어른인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이들은 자유의지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을 모방을 하며, 또한 자신이 믿는 어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삶을 진실하게 대하기를 바란다.

3. 아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관계 맺기

① “이것 봐요!”할 때 공감하자.

아이들은 “**영마, 이것 중 봐!**”라는 말을 잘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것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데,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아이들은 “**이것 봐요...**” 라고 한다. 이때 아이는 자신의 새로운 발견이나 자신의 경험에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른은 아이가 무엇을 보고 그러는지, 또는 어

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에게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말이나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상황에서 “와, 정말 신기하구나, 네가 찾았니?”하며 아이의 기대와 희망을 말로 반영하고 표현해 준다면 자신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정서적인 안정감과도 관련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심리적인 바탕을 지니게 되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손을 잡고 길을 가던 아이가 길가에서 다친 지렁이를 발견했다. 지렁이가 꿈틀대는 것을 보고 아이는 “이것 봐, 여기 거렁이가 있어, 그런데 다쳤네.” 하고 말하는 데 “바빠! 빨리 가야 돼...” 하며 아이의 발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아이의 팔만 잡아끈다면, 아이는 많이 속상할 것이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②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려면

칭찬받을 만한 일에 칭찬을 듣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칭찬을 받으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자신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게 되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결국에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칭찬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도 한다. 어른이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칭찬을 도구로 사용하면 아이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칭찬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한다.

- 보고 느낀 것을 관찰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칭찬한다.
- 결과보다는 과정에 맞추어 칭찬한다.
- 행동의 결과로 “ 정말 나도 기쁘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한다.
- 행동하기 전에 칭찬하지 말고 행동 후에 칭찬한다.

- 특히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내가 정말 잘했구나.’하고 자신 스스로도 만족감이 들도록 하는 어른의 마음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좀 더 잘 할 수 없니?”, “그것도 못하니?” 라는 판단과 비난의 말이 떠오른다면 아이들은 어른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말은 부모가 아이에게 능력이상의 기대를 하며 평가하거나, 때로는 비교, 질책하면서 드는 생각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잘하기를 바라고 또한 또래보다 더 똑똑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좀 더 잘 하지...’, ‘이런 것도 못하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거나, 혹은 더 많이 알고 더 잘하게 하려고 훈계나 설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발달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거나 실망하고 좌절감만 느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래보다 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다양하고 고차원이라 여겨지는 어휘를 구사하는 만큼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말한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 외에 어려운 과제를 준다면 그것은 실패의 경험으로 이어져서 자존감만 낮아질 뿐이다.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무언가 설명이나 훈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선 말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심호흡을 하며 아이에게 일단 공감하고 가능한 짧게 아이가 이해하는 수준의 언어로 아이와 연결하거나,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아이가 “약속했잖아요....” 하고 말 할 때

아이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자기와 많은 시간을 지내는 어른을 믿고 따른다. 또

한 아이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만큼 그 어른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한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 오늘 일찍 와!**” 하고 말하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야 한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시간에 올 수 없는데도 약속을 하면 아이는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엄마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아이도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가 될지는 확신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약속한 것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기대의 충족이며, 기대의 충족은 심리적인 안정과 세상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한다.

또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어른과의 약속이 정말 잘 지켜지는 지 실험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두고 보며, 경험적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간다. 어른이 알아야 할 것은, 어른이 아이를 믿는 것보다도 아이가 어른을 훨씬 더 믿기 때문에 비록 어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⑤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저속한 말을 사용한다면

저속한 말과 좋지 않은 말투는 아이들에게 매우 흥미 있다. 그리고 자극적이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들으면 기억하여 써먹고 연습하며 말 자체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며, 어른을 자극한다. 그런데 만일 어른들이 못들은 척, 혹은 무관심하게 대하면, 더 자주 사용하면서 반응할 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특히 경계선을 지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스스로 그만두기 어렵다.

또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저속한 말을 할 때,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고치려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것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도가 지나친 훈계는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보는데서 하지 않는다면 몰래 숨어서하게 된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때 “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 좋지 않은 말이야. 너도 그런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단호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른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태도는 웃거나 재미있는 듯 한 인상을 준다면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과 그 말에 어울리는 태도가 일치하는 느낌이 들 때 그 말이 진심임을 알고 수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어떤 학자들은 청소년 하위문화가 있듯이 어린이들도 하위문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어른들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어른들은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⑥ 진심으로 “미안해!”, “고마워!” 라고 하자.

아이는 자신이 대접받는 그대로 타인을 대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아이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다. 혹은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대강 들은 척 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고 미심쩍어한다. 이때는 **“미안해! 잘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해주래?”**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지, 진실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잘 안다. 그리고 단지 기계적으로 대할 때나 알아듣는 척 할 때도 알아채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미안해!”** 라는 말은 **“정말 고마워!”**와 같은 감사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나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어른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어른이 모범을 보이며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과정은 좋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도 하게 된다. 또한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아이를 대했거나, 지나치게 엄했다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때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마음을 전달하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된다. 이러한 어른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사회적인 관계와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⑦ 도덕교육을 하려면

아이의 도덕성을 잘 발달시키려면 어른인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다. 도덕교육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옳은 거야”라는 명령이나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야 잘 이루어진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시기에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가치인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배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아이를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것에 접촉되기 쉽다. 특히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며 살고 있지는 않는 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차도를 건널 때 ‘지금 차가 없으니까....’하고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건넌다거나, 돌아가기 귀찮아서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놀이공원에 가서 엄마가 “너는 5살이라고 하자. 그러면 돈 안내도 돼.”라고 아이에게 자신을 속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며,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거나 또는 교사가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 도덕성 발달에 장애를 겪게 된다. 또한,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옛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이 악을 이기는 내용이나 인과응보의 내용,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 등을 듣고 자라는 것이 도덕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⑧ "벌을 받아 마땅해!" 라며 벌주고 싶을 때

어른들은 아이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체벌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쁘다고 판단되는 일을 아이가 저질렀을 때 벌을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대하게 용서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쁘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거나, 또는 놀이에 몰입했다가 생기기 쉽다. 가끔은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그 경우는 자신에

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달리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필 때에도 그저 공허하게 말로만 위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해놓은 규칙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지 아이들은 잘 안다.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서 할 정도로 정말 나쁜 것인가? 엄밀히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경우는 없다. 만약에 아이의 나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하기 위한 힘의 사용은 두려움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아이의 반발심을 자극하여 그 행동을 강화하여 적개심을 키우게 하거나, 아니면 내면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자존감을 해치게 될 뿐이다.

보호를 위한 벌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하며, 이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벌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벌이 아이의 수준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네 살 아이와 열 살 아이의 벌이 달라야한다.
- 벌이 아이가 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장난하고 있고 그걸 고칠 생각으로, “너 그렇게 음식으로 장난하면 놀이터에 못나간다. 집에만 있어.” 고 한다면 상황과 벌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벌이어야 한다. 특히 벌을 받은 날이나 이튿날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벌의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벌의 종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인지라 당시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과 자세가 중요하다.

벌은 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받고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생활 속에서는 아이가 망가트린 물건을 어른이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나, 찢은 책을 그 자리에서 붙여주는 것 등은,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받고 다시 신뢰하고 믿는 어른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를 도와서 망가진 물건을 아이가 고치거나 최소한의 보안을 하는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치는 일이 다 끝나면 아이는 다시 안정을 갖게 된다.

⑨ “우린 그냥 놀았을 뿐인데요...” 라고 할 때

아이들이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들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어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나 꽃을 꺾어 모래놀이를 하며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나무는 옆집아주머니가 정성껏 가꾼 정원의 나무였고 놀이에 몰두하느라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기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린 그냥 놀았을 뿐인데요...”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장황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게하고 직접 사과하기를 강요하기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를 대신하여 어른이 함께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즉,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옆집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리도록 상황을 만들면 잘못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너그러운 용서를 바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가 겁이 나서 가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한다면 어른이 함께 가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대신 사과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⑩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아이가 거짓말할 때처럼 부모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드물다. 물건을 망가뜨리고, 친구를 때리고, 동생과 싸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기므로 그냥 지나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거짓말을 다시는 못하도록 따끔하게 야단쳐야겠다는

생각부터, 그러다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아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변명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 뿐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이의 거짓말에 흥분하기 이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생애 첫 거짓말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하는 즉, 자기가 접하는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미숙하므로 자기의 바람이나 소망, 상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통과의례적의 거짓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는 관심을 끌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나 어느 경우든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심하게 야단을 맞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야단맞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야단맞은 상황의 공포감과 불안한 느낌만 남아있게 되어 더 악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완벽한 것을 기대하거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다면 아이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아이가 진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조차도 그럴만한 배경이 있는 것이므로 부모는 그러한 아이의 마음을 살펴서 꾸짖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너무 많이 꾸짖으면 다음에 실수 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실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말한 것을 칭찬해준다.
- 어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어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거짓말이 사실인지 먼저 돌아보고 그것이 우연인지, 혼날까봐 보호기능인지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혹여 아이의 말이 의심스럽더라도 일단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주고 일단 공감한다.
- 거짓을 말하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미리 이야기한다.
- 아이와의 관계가 피의자와 형사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확인을 위해서 대질신문 등의 방법은 하지 않는다.

⑩ “좀 사이 좋게 놀아라!” 는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놀이에 푹 빠져서 노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항상 사이 좋게 놀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냥 사이 좋게 노는 것만은 아니다. 잘 놀다가도 한 순간에 다투고 싸워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울기도 한다. 그러면 “애들아, 싸우지 말고 좀 사이 좋게 놀아라.” 라며 그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진다. 또래간의 갈등은 커가면서 거쳐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싸움은 가끔 힘겨루기, 질투 등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부당함이나 모욕감을 그냥 참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한 갈등이나 다툼을 격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나 기술이 발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좁은 실내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에게 조용히 있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므로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일찍 개입하게 되기도 한다. 이때 아이들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너무 일찍 어른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결말을 가져오게 하기 쉽다. 대부분 어른이 판단하기에 나이가 어린 쪽이나 약자 쪽이라고 여겨지는 쪽에 편들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럴 경우 부당한 쪽은 억울하고 속상해서 내면에 분노를 느끼게 될 수 있고, 편들기를 받은 쪽은 부당한 힘의 관계를 일찍부터 익히게 되거나 의존적인 성격으로 클 수 있다. 아이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본질적으로 원하며, 그렇게 대우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금방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중요하고 할 수 있다.

⑫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할 기회를 주자.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분별하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부모나 교사의 도덕적인 행위의 기준에 의해 동기부여 받으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싸웠다고 하자. 그때 어른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자기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며,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회피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묻고 차분하게 아이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 할 기회를 주면, 자기가 한 행동도 알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갈등관계에서 합리적인 수습을 위해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자기의 잘못보다도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창의적인 생각은 긴장하고 있을 때 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 더 잘 떠오른다. 예를 들면, 다른 아이가 집에 놀러왔는데, “엄마, 저 아이가 내 장난감등을 얻었어.”라고 정리하기 어려운 장난감을 어질렀다고 이르러 왔다. 그러면 엄마는 장난감을 얻은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저런? 그러면 도대체 저 장난감을 누가 다시 주워담겨? 우리가 새가 되어 볼까?”하면서 새의 모습을 손으로 흉내 내어 -부리로 찍어가며- 장난감을 주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잘못을 따지지 않고 함께 장난감을 주워 담고 일은 깨끗이 해결될 수도 있다.

⑬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쓸 때

아이들은 매우 단순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당장 여기서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해서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단순히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욕구조절을 잘 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자신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떼를 쓰며 고집을 피우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좌절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아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꼭 원하는 것이나 지켜야 할 것을 자녀가 따르도록 하고 싶으면 자녀에게 다른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선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경험의 핵심이다. 자기목적이나 믿음, 행동을 선택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선택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는데 특히 아이가 자율성을 갖고자 하는 중요한 욕구를 부모가 잘 살피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린이집으로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가져왔을 때, 교사가 잘 쓰는 방법은 “그 장난감을 어린이집에 두고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놀래? 아니면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집에 갈 때 가져갈래?” 하는 것이 그 방법인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주의할 것은 아이에게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어 선택하게 하려면 제시한 내용이 자녀의 행동과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오후에 놀이공원에 갈수 없어.” 라고 한다면 밥을 먹는 것과 놀이공원 가는 것의 상관관계는 없으므로 그것은 단순한 처벌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와 쇼핑센터에 갔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썼다면 “엄마는 그걸 사줄 수 없어, 그러니 계속해서 떼를 쓸래? 아니면 정으로 갈까?” 라고 물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하고 엄마가 정말 사줄 수 없을 때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이의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또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것이 중요하다.

⑭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춤!」하자.

‘화가 난다’는 의미는 자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과 느낌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 기쁘고 즐겁지만, 화나 분노 같은 감정상태일 때는 스스로를 잘 조절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함께 나누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화의 대상자가 아이이고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손을 댄다면 아이의 마음은 얼어붙고, 움츠러든다. 아이는 부모감정의 희생자가 되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아이의 마음이 얼어붙고 움츠러들 때는 아이의 뇌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모는 화가 날 때, 그것이 더욱이 아이로 인해서 나는 화라고 생각이 될 때는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화가 날 때는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일단 멈춤!」을 하고 호흡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심호흡을 다섯 번 정도 천천히 하면 감정이 다시 내려오고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하기 어렵다면 부모 자신에게 「타임 인!」하여 진정할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는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성찰하여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돌아보고 치유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야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를 아이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⑮ 아이의 발달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자.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도록 부모가 도와주려면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아동의 언어수준에 맞추자.

“자, 이제 다 왔네, 가방 갖다 두고, 옷 벗어 걸고, 손 씻자” ⇒ **“옷 걸어라.”**

(두 살에게는 두 마디로, 네 살에게는 네 마디로, 아이들은 마지막 말만 기억한다.)

- 말의 내용은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자.

“애들아 밥 먹자.” ⇒ **“밥 먹게 여기 식탁에 앉아라.”** 혹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자!”**

- 긍정적인 내용으로 청유형으로 말하자.

“문 세게 닫거 마라” ⇒ **“문 살살 닫아 줄래?”**

- 지시할 때는 한 가지씩 하자.

“영롱 방에 가서 잠바입고 가방 가지고 와서 신 신어라”

⇒ **“잠바입고 가방 가져와라”** 아동이 따르면 **“신 신어라”**

- 아이가 들을 준비가 된 후에 말하자.

: 예를 들면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는 소리쳐서 부르지 말고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며 눈을 보고 **“영아가 할 말이 있어..”** 하며 이야기하자.

-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자. 최소한 5초 이상이 필요하다.

: 어른들은 쉬지 않고 말한다.

“가방 가져와, 지금 가방 가져 오라고! 내 말 안 들려? 영른 일어나서 가방 가져와!”

⇒ **“가방 가져와라”**

- 같은 지시는 두 번까지만 하며 그때도 따르지 않으면 직접 함께 행동을 수행 실천한다.

“가방 가져와라” (아동이 5초 내에 따르지 않았고, 어른이 직접 가져오고 아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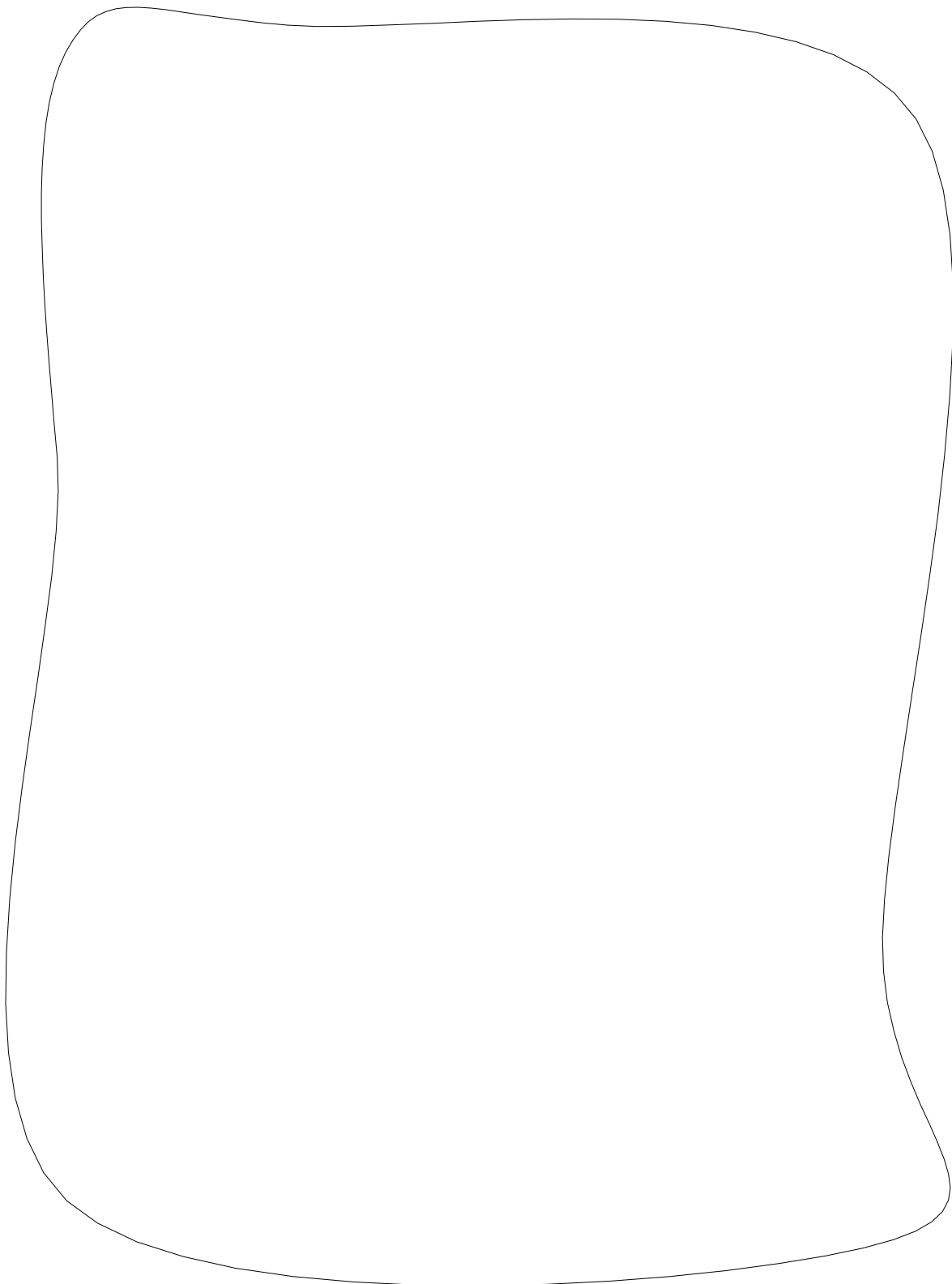
⇒ 첫번째 **“가방 가져와라”** 5초 기다리고,

⇒ 두번째 **“가방 가져와라”** 또 5초 기다림

⇒ 이번에는 어른이 아동의 손을 잡고 가방을 들려서 온다. **“가방 가져 왔네. 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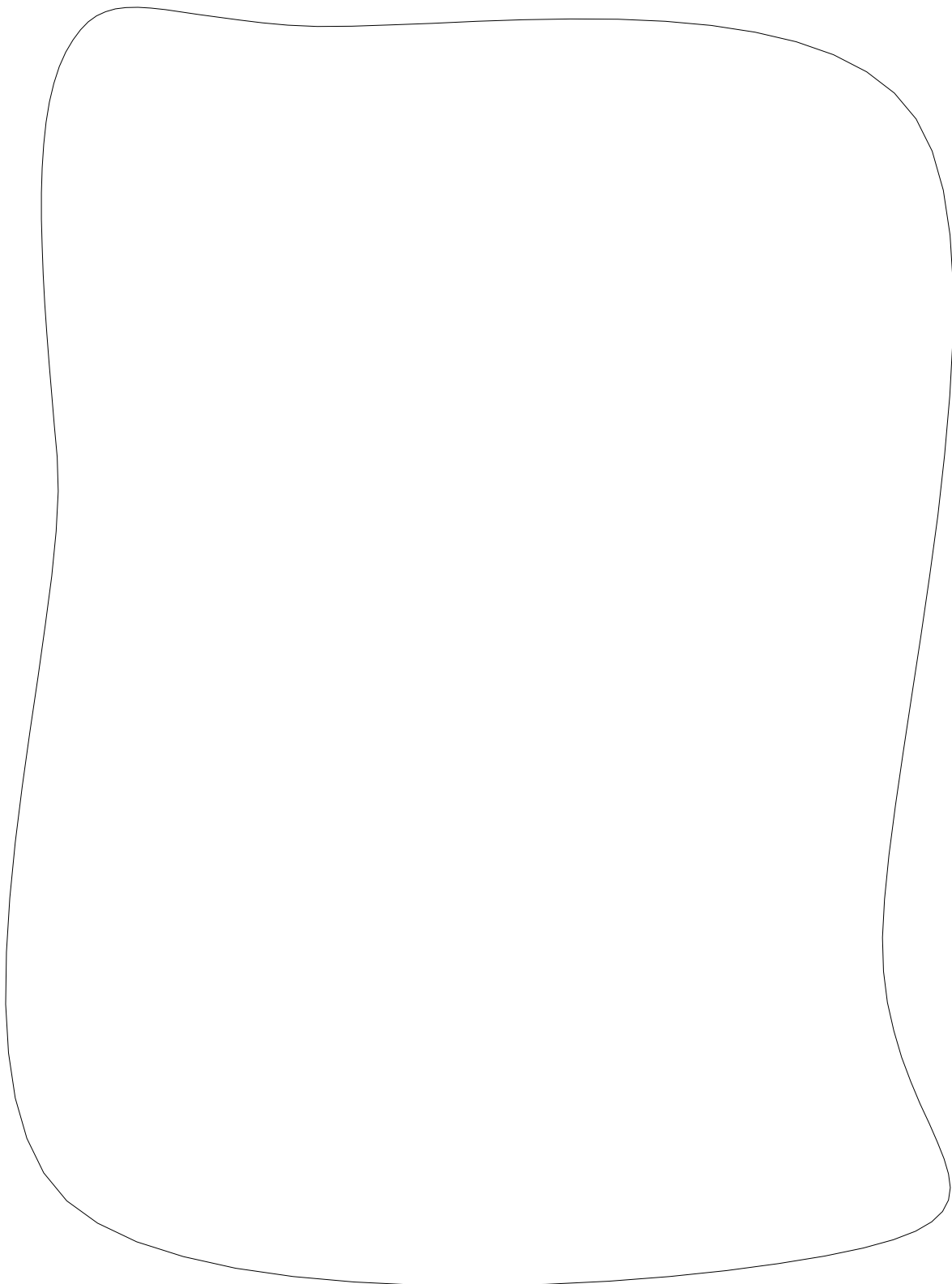
<7강>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배우기



<8강>

돌봄을 함께 할 동네사람들,
어떻게 찾을까?



<9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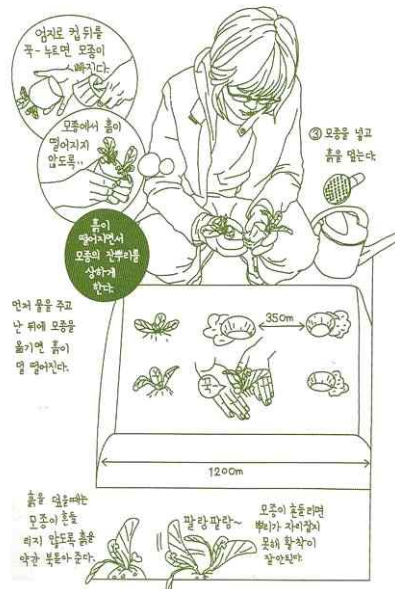
텃밭하자!

정영화 텃밭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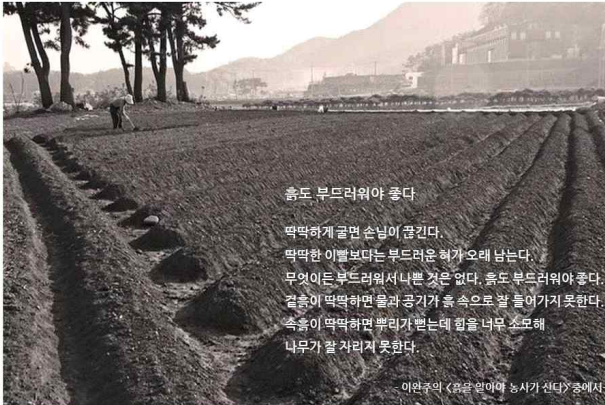
텃밭교육자료_텃밭교육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유

- 텃밭은 어린이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가공간이다.
- 텃밭은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이다.
- 텃밭은 어린이를 위한 창조적 인성교육의 장이다
- 텃밭은 공원녹지 역할을 하는 자연공간이다.

텃밭교육자료_모종심기



텃밭교육자료 · 흙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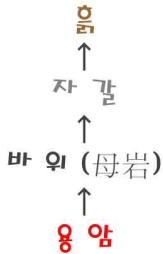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딱딱하게 굳면 손님이 골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겉층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
 속층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이현주의 <흙과 인마야 농사가 신다> 중에서

텃밭교육자료 · 흙 바로알기

흙의 부모님은 누구일까?



텃밭교육자료 · 흙 바로알기

뿌리가 하는 5가지 일

- 임이 된다 :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인다.
- 배설기관이 된다 : 양분과 노폐물을 배설한다.
- 코가 된다 : 산소를 빨아들인다.
- 다리가 된다 : 식물이 서있도록 지탱한다.
- 창고가 된다 : 양분을 저장한다.



뽕밭교육자료_거름 만들기



뽕밭교육자료_거름 만들기



뽕밭교육자료_거름 만들기



뽕밭교육자료_배추 뿌어주기



뽕밭교육자료_쪽파 심기



뽕밭교육자료_배추 심기



뫼밭교육자료... 천연농약만들기

■ 은행잎을 활용한 천연농약



1. 숙성방법

- 1) 7,8월에 은행잎을 채취하여 칼로 자른 후 믹서기에 갈아 분쇄 후 옥살산과 1:1로 재워둔다. 믹서기로 갈때 울대신에 현미식초를 넣어서 갈아 통에 넣는다.
- 2) 11월에 은행을 채취하여 속알은 맛있게 드시고 은행알을 싸고있는 껍질과 국물을 은행잎 분쇄 숙성물과 함께 재워 숙성 시킨다.
- 3) 은행 껍질 채취방법은 함지에 은행을 부은뒤 은행알과 껍질을 분리한다.
- 4) 3월이나 4월에 은행 숙성시킨것을 걸러내어 2차숙성을 시킨다

2. 걸러내는 방법

마대 자루에 재료를 모두 넣은 뒤 통 밑에 PVC 상자나 버가지를 넣은 뒤 그 위에 재료를 넣은 마대자루를 돌려놓고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다

3. 사용방법

물1말(20리터통): 은행숙성액50~100cc+현미식초40cc+소주(예철알콜)80cc+ 옥죽액(마늘숙성옥죽액)50cc+담배주머니를 80cc

참조) 담배는 물1말에 1갑을 우려냄.

4. 효과

진딧물, 유충, 응애 등 거의 모든 해충에 적용됩니다. 하절기에는 3~4일 간격, 동절기에는 5~7일 간격으로 예방살포시 거의 해충이 없습니다.

5. 살포방법

해일녘 혹은 저녁에 고무 흡박히 살포, 주기적인 살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뫼밭교육자료... 병충해



뫼뻑교욱자료_뻑중뫼



뫼뻑교욱자료_지렁이 기르기

■ 지긔지긔한 음식쓰레기 지렁이로 처리합시다!

내 집 음식쓰레기로 지렁이를 기르는 일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분해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를 보여주는 자연세계의 순환, 그 과정에 동참하는 작은 생명들의 존재들은 그저 미물로만 치부하던 인간의 통념과 어리석은 우월감마저 성찰하도록 이끌어 주지요

■ 지렁이 기르기 체*크*리*스*트

1. 먼저, 지렁이와 지렁이 퇴비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자. 특히 지렁이에 대한 올바른지 않은 선입관이 있는 이들이라면 더욱 더 알아야 한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
2. 2,3주 간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의 양을 가능하다. 되도록 정확한 무게를 알면 좋다.
3. 음식쓰레기의 양에 맞춰 집에서 기를 지렁이의 양을 결정하자.
4. 지렁이가 살 집 <지렁이 상자>를 준비한다. 사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다.
5. 지렁이가 먹이를 먹으며 살아갈 복직한 배딩 <갈개>를 준다. 신문지, 낙엽, 톱밥 등등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6. 지렁이 상자에 갈개를 넣어서 해가 들지 않는 곳으로 상자를 둘 곳을 정한다.
7. 지렁이 침대 <갈개>는 적당히 수분이 있는 상태로 상자에 넣는다.
8. 지렁이를 상자에 넣는다.
9. 음식쓰레기를 갈개 속에 묻어준다. 지렁이는 빛을 싫어하므로 표면에 던져 줄 때는 빛을 차단하는 덮개가 있어야 한다.
10. 주기적인 습도 체크가 필요하다. 지렁이는 과도한 수분이나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는 탈출하거나 죽어버린다. 기르기 시작한 지 4주 후부터는 지렁이가 새끼를 낳으므로 알주머니나 새끼들을 찾아볼 수 있다.
11. 늘어난 지렁이를 수확해서 이웃에게 분양시키거나 새로운 지렁이 상자를 더 만들어 본다. 지렁이 수확 후에는 새로운 갈개를 넣어준다.
12. 지렁이 퇴비와 분변토를 수확하여 화분과 텃밭 식물을 가꾸어 보자. 풍요로운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텃밭교육자료 ..천연농약만들기

■ 고추를 활용한 천연농약

; 신선한 고추 50g에 물 2kg을 붓고 30분간 가열한 다음에 액을 걸러내어 뿌리면 진딧물, 광벌이, 응애 등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고추잎에 소량의 물을 붓고 짓찧어 찌꺼기를 짜낸 다음 원액에 3배의 물을 혼합하고 다시 소량의 비눗물을 첨가하여 저온 뒤에 뿌리면 진딧물이나 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제한다.

■ 양파,마늘을 활용한 천연농약

; 마늘과 양파 각 20g을 섞어 짙은 뒤에 물 10kg을 타서 24시간 침포 하였다가 걸러낸 액을 뿌리면 효과적으로 감각충, 진딧물, 응애 등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 담배를 활용한 천연농약

; 담배 1kg을 썰어 10kg의 끓인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침포한다. 수온이 25℃로 내려갔을 때 물에 담가 연해진 담배를 반복적으로 3차례 손으로 주물러 얻은 담배물을 뿌리면 진딧물과 장님 노린재 등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 요구르트를 활용한 천연농약

; 요구르트 원액을 진딧물이 있는 잎의 앞뒤에 고르게 분사를 해주면 요구르트가 마르면서 진딧물을 질식사 시킬 수 있다.
→ 요구르트가 마르며 당분이 잎의 표면에 굳어서 잎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을 저지하여 잎마름병, 일그러짐병을 유발하며, 당분으로 인한 단 냄새가 생겨나 또 다른 해충이 날라와 갈 수 있다.

■ 식초를 활용한 천연농약

; 식초를 200배이상 물에 희석하여 분사하면 진딧물 퇴치 효과가 있다.
→ 식초는 산성이므로 토양 자질을 산성화 시킨다. 식초가 진딧물을 잡지만, 토양에 있는 유기질/유기물 또한 파괴시켜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
이는 식물의 생육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텃밭교육자료 ..천연농약만들기

■ 난황유

▷ 난황유란 식용유를 계란노른자로 유허시킨 현탁액으로 병해충(흰가루병,노균병,응애 등) 예방 및 방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기농 작물보호자재이다.

▷준비재료

; 식용유, 계란노른자, 가정용 믹서기

▷방법

; 소량의 물에 계란노른자를 넣고 2~3분간 믹서기로 간다.

; 계란 노른자 물에 식용유를 첨가하여 다시 믹서기로 2~3분간 혼합한다.

; 만들어진 난황유를 물에 타서 작물에 골고루 살포한다.



재 료	별 발생 전			별 발생 후		
	1말 (20L)	10말 (200L)	25말 (500L)	1말 (20L)	10말 (200L)	25말 (500L)
식용유	80ml	500ml	1.5L	100ml	1L	2.5L
노른자	1개	7개	15개	1개	7개	15개

<참고자료>

아파트에서 '농사'짓는 '강북 대치동' 주민들

- '텃밭부터 마을기업까지'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출처 : 오마이뉴스, [마을의 귀환⑬]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40~60대 '아줌마' 5명이 아파트 둘러 앉아 노란빛이 나는 액체가 들어있는 투명용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스티커에는 액체 사용법이 적혀있다.

1. 부엌에서 발효액(50%)+세제(50%)사용
2. 세탁기 : 발효액 150~300cc 정도 넣어 한두 시간~하룻밤 담가 넣은 후
세탁(세제양 반 정도 사용)
3. 가정정원에서 발효액 500배 희석하여 물주기
4. 화장실 변기에 발효액 100배 희석하여 청소
5. 발효액을 10~100배 희석하여 냉장고 청소, 세차, 유리 닦기에 사용
...(이후 생략)...

정체불명의 액체는 바로 EM 발효액.

EM은 유용한 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뜻의 '친환경 미생물'이다.

놀라운 것은 이 EM 발효액을 관리사무소 지하 기관실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조했다는 점.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해에는 마을기업도 만들었다. 마을기업의 이름은 (주)청구이엠환경.

음식물 쓰레기 하루 1톤, 아파트 자체적으로 퇴비 만들어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였다. 부녀회 부회장 심상숙(48)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가리켰다. 지붕과 벽돌담으로 된 쓰레기장에는 페달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처음 집을 보러 왔더니 각 집마다 바깥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와 있는데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았어요. 부녀회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부녀회원 4명이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사진을 찍었어요. 부천까지 갔다 왔다니깐요."

그런데 9개 동, 780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았는데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악취 제거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뿌렸기 때문이다. 기관실에 있는 EM 발효액 제조기에 EM 원액, 물, 설탕, 쌀겨 등을 넣어 발효액을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발효액은 매달 열리는 마을 장터에서 1병당 1000원에 팔거나, 노원구청에 납품해 인근에 있는 당현천에 뿌려져 하천을 정화한다. 장애인 자활단체와 연계해 세탁비누를 만들기도 한다.

또 하나, 청구3차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EM 발효액을 섞어 퇴비를 만들고 있다. 아파트 한켠에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톤. 음식물 쓰레기 '순환 구조'가 마련되면서 월 117만 원이 들던 음식물 수거·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변영수(58) 입주자 대표회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EM을 알게 되었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EM을 어떻게 활용할지 배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는 EM 환경센터가 있다. 부녀회원들도 자비를 들여 제주도에 '견학'을 다녀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결연을 맺고 있는 농가에 보내진다.

관리사무실을 '문화센터'로, '엄마'들이 관리하는 '마을독서실'

58.8%. 서울시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 비율이다(2011 서울통계연보). 2010년 기준, 아파트 거주 가구는 143만 9259가구로 전체 가구의 41.1%를 차지한다. 단독주택(37.2%), 연립·다세대 주택(16.6%)이 그 뒤를 잇는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내놓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공동체'가 강조된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1080개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숲' 아파트가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수십 년을 '월급쟁이'로 살던 변영수 회장은 2008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았다. 10년 넘게 살면서도 출퇴근만 했던 아파트였다. 그러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털어 아파트 공동체 문화 연구소를 차렸다. '아파트 공동체 실험'의 시작이었다. 변 회장은 "일본에 있는 맨션을 한국에서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변 회장은 (주)청구이엠환경 대표이자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대표강사가 되었다. 청구3차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체 성공 사례로 꼽힌다.

청구3차아파트가 있는 중계동은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명문'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있어 '강북 8학군'이라는 별칭도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세 아이를 둔 심상숙씨 역시 아이 학교 때문에 5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청구3차아파트 주민의 75%가 심씨처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다. 자가 소유주 비율은 70%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다.

20일 오전, 부녀회장 송영분(62)씨, 부회장 심상숙씨, 총무 유미옥(47)씨 등이 EM 발효액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동안, 관리사무소 2층 '문화센터'에서는 요리 수업이 한창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주민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10여 명이 모였다. 30~40대 주부들이다.

오늘의 요리는 '스시'. 앞치마를 입고 레시피 용지를 받아든 주민들은 공부하듯 요리법을 꼼꼼하게 메모한다. 강사는 외부에서 초빙했다. 수강료는 한 달에 1만 원 정도. 요리의 경우, 별도의 재료비를 내야 한다. 스시에 들어갈 밥을 짓는 동안 주부들은 이야기꽃을 피운다.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관리사무소 2층은 주로 관리사무실 용도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2008년 현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요리뿐만 아니라 요가, 바둑, 보드게임,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수시로 모임도 열린다. 부녀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박경실(42)씨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살아봤지만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이 잘 되는 아파트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팀워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변영수 회장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지르는" 스타일이라면, 부녀회는 때로는 '협조자', 때로는 '견제자'로서 꼼꼼하게 일을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 변영수 회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가 하나 하나 바꿔나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성과가 관리사무소 3층에 위치해 있는 '입주민 독서실'이다. 주민 82%의 동의를 얻어 2009년 6월 문을 열었다. 50평 공간에 7개 열람실, 83개의 좌석이 있다. 한 달 회비는 7만 원, 사설 독서실비가 15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다. 심상숙씨는 마을기업 일과 함께 독서실 관리 총괄도 맡고 있다.

"독서실은 4년 전에 제가 처음 만들자고 그랬어요. 부녀회 부회장을 처음 맡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거창한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생각했어요. 그 때 큰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아파트 밖에 있는 사설독서실에 보내니까 딸아이가 밤에 오는 게 무섭잖아요. 제가 데리러 가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3층에 입주자대표회의실이란 서당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자고 했어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자리가 빈 적이 없어요. 평균대기자가 40~50명이에요."

독서실 관리는 주민들 5명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내 아이 같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게 된단다. 심씨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독서실 총무'가 된다.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 탓에 독서실은 추석 연휴 하루, 설 연휴 하루. 일 년에 이틀만 쉰다.

도라지, 고사리, 흑미, 깨... 아파트 맞아?

아파트 곳곳에 꾸러진 '마을 텃밭'도 아파트의 자랑거리다. 송영분씨는 이날 집을 나서면서 가위를 챙겨 나왔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심어 놓은 가지를 따기 위해서다. 반질반질 빛이 나는 보라색 가지 옆 상자 텃밭에 심어진 초록 잎의 배추가 한 눈에 보기에 실하다. 송씨는 연신 싱글 병글이다.

"이게 한약 먹은 배추예요. 한약 찌꺼기를 거름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유미옥씨는 아파트 난간에 고추 텃밭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고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간에 내놔더니 주렁, 주렁, 주렁, 열리는 거예요. 신기해 죽겠어. 너무 예뻐."

도라지, 고사리, 흑미, 깨,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아파트 유휴공간에 심어진 작물들이다. EM 발효액을 섞어 만든 퇴비를 뿌리고, 빗물 탱크를 설치해 모아 둔 물로 '농사'를 짓는다. 옥상에도 텃밭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도시농업'이다. 변영수 회장은 "아파트 봉사단을 만들어서 단지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심었다"면서 "추석 지나고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고구마 수확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회장은 "우리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의사를 결집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강>

한걸음 한걸음 우리동네 나들이

김민정 생태나들이 전문강사

‘나들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동네에 어떤 집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이 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들이는 먼 곳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는 ‘성미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다가 서울이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의 작은 지지대가 되어준 것은 ‘성미산’이었습니다.

‘성미산’이라서가 아니라 ‘산’이 마을 중심에 있다는 것, 내가 사는 동네에 있다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아마도 나의 든든한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성미산을 만났을 때는 ‘이게 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도시생활 속에서 그 작은 산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 주고 해와 바람을 느끼게 해 주며, 내 마음의 평안까지.. 그리고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동네에도 그런 장소가 있겠지요? 저처럼 동네의 작은 산일 수도 있고, 동네의 작은 공원, 혹은 동네에 누군가가 키우는 텃밭일지도 모르지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 그것의 소중함을 외면하며 살고 있어 그저 안타까워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연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집 앞에 키우고 있는 화분텃밭을 비롯해 동네주택 안에 있는 나

무들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자연입니다.

왜 이렇게 나들이를 하자고 이야기 할까요?

현대는 산업화로 인해 아이들은 바람, 햇빛, 흙, 파란하늘, 그리고 푸른 숲, 새의 소리, 작은 벌레, 풀등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차지한 것은 TV, 게임기, 컴퓨터 등 전자기기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한 피해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게임에서 아이들의 살려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와 바람과 비를 맞게 해 주고, 나무와 새와 벌레와 어울릴 시간을 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인간도 자연의 작은 부분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 거지요.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를 나가보세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에는 작은 햇빛을 보기 위해 나와 있는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대부분이 텃밭작물들이지요. 아이와 그 변화를 매번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요. 고추가 커가는 모습도 고추앞에서는 진짜 고추냄새가 나는 것, 가지는 잎도 열매도 보라색인 것 등등이 아이들에게 재미난 자연 놀이지요. 동네를 나들이 하다보면 만나는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감나무, 대추나무, 후박나무, 모과나무 등등.. 나무들의 변화를 지켜보려면 한 해를 꾸준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안의 감나무 하나를 정해 놓고, 아이와 자주 보러 다니세요. 봄(5월)에는 감꽃이 하얗게 피니 감꽃을 주워 목걸이를 만들어 보고, 여름에는 감나무 잎으로 그릇도 만들어 보고, 떨어지는 생감을 주어 염색도 할 수 있어요. 가을에는 감이 얼마나 익었나 색의 변화를 관찰해요. 운이 좋으면, 감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겨울에 감도 잎도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는 것도 아이에게는 겨울의 계절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작은 산들이 있고, 공원에도 여러 나무와 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무심히 지나칠 뿐이지요. 길 따라 만나는 것들도 다

다르니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떠나 보세요.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아이에게는 훌륭한 놀이감이 되니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지나지 않고 살펴주세요.

저희가 가 볼 성미산은 5,6월에는 아까시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나무가 아까시나무 일 정도로 참 많아요. 꽃도 따 먹어보고 앞으로는 가위바위보로 떼기 놀이, 아까시파마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다보면 군데군데 뱀딸기, 산딸기가 있습니다. 뱀딸기는 맛이 멍멍하고,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하나, 요즘은 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산딸기는 알이 탱탱하고 맛도 달콤합니다. 산에서 찾아보니 재미가 쏠쏠하죠.

맥문동열매, 제비꽃, 달개비꽃을 문지르면 예쁜 자연의 색이 나타납니다. 종이 혹은 하얀 천위에 문질러서 그림을 그려보면 예뻐요. 물오리나무열매를 주워 염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봄에 만나는 애기똥풀은 손톱에 칠하는 매니큐어가 되기도 하는데, 독성이 있다고 하니 바르고 손가락을 빨면 안 됩니다. 성미산에 지천으로 있는 며느리밀씻개를 따 먹는 재미도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놀아보는 것이 바로 생태놀이입니다.

생태놀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자연의 작은 풀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 놀던 기억들을 떠올리시고 아이들과 재미나게 노시면 그게 생태놀이이지요. 거창하게 무엇을 해 내야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아이와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생태놀이가 어렵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산에 가실 때는 작은 식물도감을 하나 챙겨가세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 ‘몰라’라는 대답보다는 ‘우리 같이 찾아볼까?’가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작은 도감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두셨다가 아이와 산에 가서 찾아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또, 풀이름이 무엇인지 몰라도 다시 어린시절도 돌아가셔서 풀 따고 열매 따서 소꿉놀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아요. 자연을 마음껏 즐

겨주세요.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흙장난, 물장난, 산에서 뛰어다니기, 탐험하기, 굴러다니기 등이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놀이이자 교육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해봐요.

♠ 천에 나뭇잎 염색하기

- ① 마음에 드는 나뭇잎 혹은 꽃을 고른다.
- ② 천을 놓고 그 위에 나뭇잎 혹은 꽃을 놓고 그 위에 OHP필름을 덮는다.
- ③ 동전으로 잘 문지른다.
- ④ 여러나무잎과 꽃으로 꾸며 천을 완성
- ⑤ 간단한 주머니를 만들어 본다.

* 물이 오른 4,5월이 적당함. 매염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됨.

♠ 돌멩이에 그림 그리기

- 다양한 돌을 주워 모양을 만든다.
- 돌에 싸인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본다.

♠ 자연 파레트만들기

- ① 종이를 파레트 모양으로 자른다.
- ② 봄에 피는 여러 색의 꽃을 따서 문지른다(제비꽃, 철쭉, 진달래, 애기똥풀 등).
- ③ 자연의 색을 넣은 파레트를 완성한다.

* 종이에 색을 문질러 위에 아이의 그림을 그려 액자로 전시해도 멋지다.

<참고자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공동육아의 나들이²⁾

이부미 경기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왜 나들이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오늘날 산업화된 대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은 댓가로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이웃과 야산과 구름과 맑은 바람을 잃었다.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상실은 소외된 인간관계를 야기 시켰다. 관계성을 상실한 채, 고립화된 방식으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육아환경을 모색하던 공동육아는 그 대안의 핵심을 '자연'으로 보았다. 공동육아는 먼저,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자연'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되찾아 주는가 하는 점이었다.

물리.사회.문화적 측면이 반 생태적으로 짜여있는 삶의 구조 안에서 사는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자연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동육아의 교육적 생각이다. 그래야만 '네오 호스피탈리즘'³⁾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어린이들에게 삶과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동육아의 나들이는 좁은 의미의 자연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앞서, 생태윤리학적 관점이라는 '관계 중심의 사유'가 전제된 실천적 교육활동이다.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유를 극복하고자하는 관계중심의 사유의 한 가운데는 생태주의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주의 이념과 실천들이 있는데 생태주의 교육운동, 생태주의 여성운동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김정희(1998)는 공동육아 운동을 생명여성주의의 한 실천 가능태로 보고있다.⁴⁾ 공동육아의 교육운동은 이

2) 이 글은 2001. 11. 한국어린이 육영회 창립 20주년 기념 유아교육 학술대회 『어린이와 자연:교육의 미래를 생각합니다』에서 발표한 “나들이를 통한 어린이들의 자연체험:공동육아 사례”를 생태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부분 수정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3) 현대사회의 새로운 시설병으로 감각차단 현상을 말한다. 고립된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아이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연과의 접촉의 결핍, 직접 경험의 결핍현상도 여기에 해당된다(정병호, 2000).

러한 철학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에 대한 관계중심적 사유의 실현태가 바로 나들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이고 거창한 어른들의 생각들이 어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나들이 작업의 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

나들이에서 어린이들은 자연과 어떻게 교감하는가?

자연 안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온 몸으로 논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다. 자연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자유의 공간으로, 특별히 다급한 안전과 관련된 것 말고는 교사의 별다른 개입 없이 아이들 스스로 몰입하고 활동한다. 자연은 어린이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를 압축하면, 자연현상과 생명체와의 만남, 발산적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1) 자연현상과 생명체와의 만남

나들이는 거창한 목적을 두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 매일의 짧은 여행이라서 일상의 평이함과 함께 그 안에는 지속적인 자연의 변화와 다양한 자연현상이 펼쳐진다. 자연은 언제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변이를 생생하게 포착하게 해주는 존재이다. 작고 부드럽기만 하던 연초록의 어리고 작은 잎들이 다 자라 무성해진 산길에서 어린이들은 달라진 나뭇잎의 색깔과 크기를 자기 손과 대보며, 나무의 성장을 느낀다. 또 매번 다니던 산길이 진달래꽃에서 철쭉 꽃으로 또다시 하얀 싸리 꽃으로 바뀌어진 산을 보며 생태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새 봄에 짙레 순을 따먹으며 작년에 따먹었던 짙레 순의 맛을 기억하는 일 또한 자연에서 일어난다.

생태계의 변화가 드러내는 사태는 매일 다른 반복으로써 성장과 변화를 지각하게 한다. 자연이 드러내는 색깔, 자태, 소리, 냄새, 온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곧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이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매일 다른 반복은 놀이세계에서 경험하는 창조적인 반복과 닮아 있다. 자연 안에서 어린이는 땀 수 있는 시간, 걸을 수 있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간을 부여받으며, 계절의 변화와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세계를 경험하면서 경이감을 키워나간다. 또한 무한한 공간인 자연 안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알맞은 삶을 찾아서 등지를 틀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알맞은 삶의 형

-
- 4) 생태주의와 달리 생명여성주의에는 불교,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철학이 바탕에 깔려있어서 공동육아의 관계중심적 사유는 앞으로 서구의 생태주의 사상을 넘어 동양사상과의 접근도 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태를 찾아내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가 된다.

어찌 보면 자연의 변화란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삶과 죽음을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오고 가는 나들이 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아이들 나름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도 생겨난다.

2) 발산적 체험

자연으로의 나들이는 아이들의 오감각적인 체험과 함께 온 몸을 놀리는 활동이다. 자연은 인간의 온 몸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나들이는 아이들의 발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활동이다. 나들이에서 아이들은 걷고 뛰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보고 만지고(아이들은 뽀족한 밤 가시에도 찔러보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코를 닦을 때나 똥을 닦을 때 6월 전에는 부드러운 어린잎으로 닦아준다) 냄새 맡고 먹고(자연이 선사하는 먹거리는 의외로 많아서 봄이면 찔레 순, 앵두, 오디, 늦여름에는 솔잎을 씹고 가을에는 온 산에 지천인 감과 밤을 주워 먹는다) 마시고 타고(침낭쿨, 나무) 노래 부르고 풀피리도 불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말하고 웃고 울고 논다. 이는 나들이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무엇이기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생생한 발산이며 감각적 체험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연에 흠뻑 빠져서 활동하고 논다. 자연적 놀이감은 잠시도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세상을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아이들, 그것이 부러워 여러 사람의 응원과 도움으로 몇 번이고 나무에 오르다 땅에 떨어지는 아이, 처음 타 본 침낭쿨 그네를 50분 내내 연습해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성공하는 다섯 살 박이 여자아이,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어흥’하는 호랑이 소리를 30분 내내 지르는 세 살 박이 어린이도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자연 안에서 유감 없이 펼쳐 본다. 그래서 자연은 아이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은 그 초대에 기분 좋게 응하는 것이 나들이이다. 자연을 소중히 할 것을 교육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적 세계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왕국”이며 “과업에서 해방된 장소”라고 한 和田修二(1997)의 말에서 아이들의 발산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니는 교사들에게도 나들이는 ‘가는 것’이지 ‘가르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대표교사를 맡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게 된 교사는 “나는 나들이 안 가고는 못사니까 끼리방 나들이 갈 때 같이 가서 도와줄

게”라고 동료교사에게 말한다. 이처럼 나들이는 교사나 아이들 모두에게 사는 것과 관련된 체험이다.

공동육아 교사들의 나들이에 대한 평가에는 직접체험, 경계가 없는 발산, 사물을 본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하는 능력, 교사가 아이의 관심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성장의 가능성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때 4계절의 흐름과 변화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는 것도 교사들이 판단하는 교육적 가치이다. 어떤 교육활동을 평가한다고 할 때 수량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인 평가가 보편적인데 비해, ‘생생하고 개운한 아이들의 표정에서 살아 있는 교육임을 확인한다’는 교사들의 언표는 나들이가 객관화 할 수 있는 경험 이전의 체험인 까닭이다.⁵⁾

인간의 풍부한 자기 형성 혹은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를 통한 교육이나 습관의 형성 그리고 여러 가치의 체험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신체적인 체험과 세계 체험이란 어른보다도 훨씬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 몸이란 세상을 만나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예민한 오감적인 체험과 온 몸을 놀리는 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나들이에서의 감각 경험과 인식 과정은 체험에 바탕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다.

5) 서명석과 김종구(1998)의 "독일어처럼 체험(Erlebnis)과 경험(Erfahrung)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몸에 배는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후자에 비해 '몸소, 친히'라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존 듀이류의 실용주의에서 주장하는 '경험'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에서 경험보다 생생하고도 원형적인 체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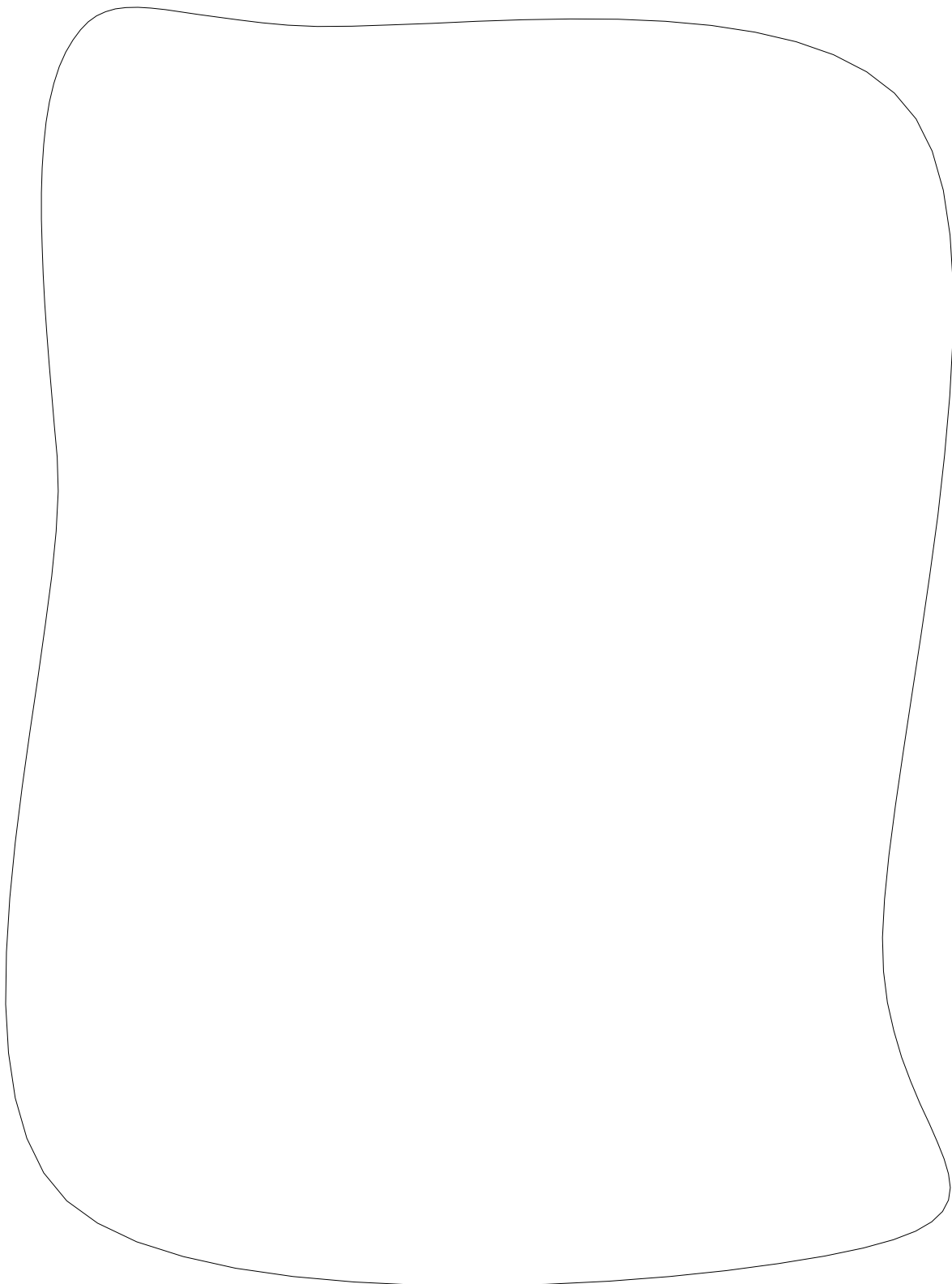
<11강>

나도 컨설턴트

<12강>

마더센터 사례를 통해서 보는 돌봄공동체 자기 전망 찾기

박정이 오방놀이터 대표



<참고자료>

독일 '마더센터' 여성들이 만든 돌봄 교육공동체

엄마들의 힘으로 지역 공동체가 크다

현재 전 세계 750여 군데로 퍼져나간 마더센터. 의미 있지만 고되고 저평가되기까지 하는 육아를 지원하고, 자칫 고립되기 쉬운 어머니들의 연대를 통해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키워내는 비영리 기관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방문한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 마더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언뜻 한국의 복지관과 비슷해 보이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평등하게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운영 방식,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주어지는 철학. 마더센터의 주인은 바로 주민들이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EKIZ'(Eltern-Kind-Zentrum)는 '더 제너레이션 하우스'라는 간판이 붙은 현대식 건물 안에 있었다. 슈투트가르트시에 지은 건물로, 1층에 널찍한 로비와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과 바, 도서관, 재활용 가게, 아동단기보호시설 등이 들어서 있었다. 한가운데 찻집 겸 식당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늘 여성들의 유쾌한 수다가 이어진다.

21년 전 우연히 독일에서 마더센터를 처음 만든 엄마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센터 속의 여성들'을 읽고 감명을 받아 'EKIZ'를 세우게 됐다는 안드레아 라옥스씨는 우리 일행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당시 저는 싱글맘이었어요.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아이 하나는 반신마비였고, 저 자신에게도 중독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서는 동네 장터에 가서 함께 마더센터를 만들 사람을 찾는다는 유인물을 돌렸다. 또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가 공짜로 방을 빌렸다. 처음엔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다.

그는 비슷한 상황의 엄마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등의 많은 문제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불평등과 잘못된 정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한 일이 개인적인 사정을 터놓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싱글맘이나 남편이 경제력이 있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여성, 또는 돈 버는 여성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더센터의 운영철학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 마을 주민들은 마더센터를 서슴없이 ‘우리 집’이라고 불렀다.

계층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100여명의 주민들이 마더센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했다. 언제든지 들어와서 일을 보고, 문단속을 한 뒤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열린 공간에는 무려 40여개국의 이주 여성들이 동참하며 공동체 문화를 일궈가고 있었다.

둘째는 아이들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EKIZ가 세워진 1986년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낯선 경험이라고 했다. 공적 영역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다. 이곳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어린아이를 돌봐주기도 한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참혹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이제는 아이들처럼 노인들도 마더센터 활동에 포함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셋째, 주민에 의한 운영 방식을 고집한다.

“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잘하는 일이 한 가지씩은 있게 마련이니 와서 재능을 나누라”는 것이다. 이들은 뭔가를 조직하고 계획할 때 먼저 내부 사람들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는지부터 알아본다. 일반 사회에서는 직업적 전문가를 높이 쳐주지만, 마더센터의 철학은 자신들을 ‘일상생활의 전문가’로 보는 것이다.

넷째, 인정을 해주는 문화다.

마더센터 내부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은 모두 보수를 주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1980년대만 해도 매우 혁명적이었다. 지역 정치인들은 “주부들이 나라 돈을 받아 앉아서 커피나 마실 거냐”며 빈정거렸다. 그러나 그 성과가 이제 독일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라옥스 씨처럼 국가의 생계비 보조를 받고 사회복지사의 돌봄을 받던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여자들이 집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던 일들을 공식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엄마들이 여성운동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마더센터의 운영 철학은 ‘마더센터를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이라고 불리며 건물 공간 곳곳에, 또 모든 프로그램과 만남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마더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안티나 씨는 “마더센터에는 ‘예민한 안테나’ 같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언제나 옆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곳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진짜 가족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곳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는 마더센터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게 좋았고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 많은 여성들을 데려와 체험하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마더센터에서 의사결정 참여자로 역량을 쌓은 주민들은 지역 사회에 이슈를 제기하고 지방정부 정책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풀뿌리 여성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공공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 [제326호]

<참고자료>

네덜란드 ‘파더센터’,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과 사회가 바뀐다.

파더센터는 49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갈 때 옷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들에게 봉제 교육도 실시한다.

파더센터(father center) 이름이 ‘아담’? 실실 웃음이 나왔다.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 락 지방의 마더센터(mother center)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파더센터는 주거 지역에 자리 잡은 마더센터와는 달리 차들이 썩썩 달리는 대로변 단층 건물에 있었다. 헤이그 전역의 남성들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네덜란드 전국에는 7개의 파더센터가 있고 헤이그 시에만 2개의 파더센터가 있다. 우리가 찾은 파더센터 ‘아담’은 6년 전 네덜란드에서 처음 문을 연 곳이다. EU에서 주는 상을 받은 적도 있어서 뒤늦게 EU에 가입한 스페인, 루마니아 등에서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왁자지껄한 아랍 남성들 사이에 여성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나눠주는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이었다. 물건이 필요한 여성들도 찾아온다고 했다.

마더센터처럼 이곳 파더센터에도 공간 중간에 커피나 차를 내오는 바가 있고, 바 안쪽으로 음식을 하는 조리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20명분의 음식을 만들고,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행사는 대부분 저녁 시간에 열리는데, 이곳을 찾는 남성들은 주로 막일을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4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49개국에서 온 이민자 2500명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너무 바쁜 센터장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일행에게 차와 커피, 과자를 내오던 나

이 지긋한 아랍 남성이 경쾌한 콧노래를 불러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밝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아랍 남성 하면 가부장적이고 어딘지 무게 잡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다소 의외였다. 드디어 바쁜 일을 대충 마친 파더센터 ‘아담’의 설립자이자 현 센터장인 아니타 쉬밥(Anita Schwab)이 우리에게 왔다.

남성들의 부드러운 변신

마더센터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활동하던 아니타에게 6년 전 아랍계 남성들이 찾아왔다. 아내와 딸들이 마더센터에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네덜란드 말도 배우면서 똑똑해지는데 남자들만 뒤처지는 것 같다, 우리들에게도 파더센터가 필요하다, 함께 파더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선뜻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오랫동안 여성들 편에 서서 페미니즘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남자들하고 일을 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서 흑인과 백인이 결국 하나의 원을 이루었듯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을 하며 원을 만들고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평생을 여성과 함께 일해 왔고 다시 파더센터에서 남성과 함께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낸 아니타. 그녀는 “내 운동적 삶의 동그라미가 비로소 완성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더센터 회원들이 그녀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해 주니 우리가 집에서 더 자유로워졌어”라며 고마움을 표시해오기 때문이다.

‘아담’ 아버지 모임 만들어

파더센터 ‘아담’이 이끌어낸 남성들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큰 프로젝트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아랍 전통 음식에서 이름을 따온 ‘쿠스쿠스 수다 커피숍’이란 모로코 아버지 모임이 있다. 1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저녁에 동네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 말을 걸고 “여기서 뭐하지? 일을 하든가 뭘 배우든가 해야지” 하면서 젊은이들을 선도한다.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알게 하고, 모로칸 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이들 아버지 모임은 요리를 하고 수다도 떨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담을 나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가 있는 수다방을 운영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의 바로 전 주에는 ‘모로칸 문화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다.

여성의 입장서 생각한다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히잡을 만들어 써봐라’, ‘당신이 일할 부역을 만들어 봐라’, ‘여자처럼 이야기해 봐라’, ‘남자가 생각하기에 여자가 다니기에 위험한 구역은 어디인가’ 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참가자 60명 중 여성이 7명이나 되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이전에는 이런 토론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참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랍계 이민자가 많은 지역사회에서 이것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파더센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월·수요일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만들어 파는 식당을 운영한다. 가격은 2.5유로(약 3200원) 평균 60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매일 요리를 만들어 나누는 행사도 저녁마다 열리는데, 우리가 간 날에도 20명분의 음식을 만들고 있는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부터 남성들은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역·가정 함께 돌보다

파더센터에서는 매일 저녁 요리를 만들어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남성들은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보였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 마음의 행복을 느끼기에 그런 소박하면서도 맑은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리라.

그리고 보니 식당 이름이 걸작이다. ‘마음으로 운영하는 식당!’ 헤이그에 여행갈 일이 있으면 꼭 이 식당에 들러보시라. 마음이 먼저 배부를 것이다.

‘성공적인 옷 입기’ 가게 프로그램도 49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요긴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민자들은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업이 없는 이민자가 오랜만에 취직 기회를 얻어 기업체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 파더센터 내 이 가게에서는 멋진 옷을 빌려준다. 취직이 되면 입고 간 옷을 선물로 주고, 한 벌을 더 준다. 모두 기부 받은 옷들로 지하에 다양한 치수의 정장과 구

두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이 가게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주 1회씩 12주 과정의 봉제 교육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기부 받은 물품을 최저생계비 생활자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무료로 나눠주는 가게'도 열린다. 한 번 물품을 받으면 헤이그 시의 상징 새인 학이 그려진 패스에 기록하고 4주 후에 다시 물품을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13개국에서 온 아버지들이 참여해 순회공연 중인 연극도 흥미를 끌었다. 13명의 아버지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어땠고, 나는 아버지로서 무얼 느끼고 있는지,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등을 이야기한다. 지역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연극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경험일 것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 기획기사 [제327호]

<참고자료>

프랑스 주민단체 '빠랑부주(Parenbougé)

나는 여성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아홉살 난 딸아이와 연년생인 아들,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그나마 손이 덜 가지만 어릴 때만 해도 친정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일과 보육을 양립하기 힘들었다. 야근이나 출장이 있을 때면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나에게 알맞은 보육 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다. 프랑스 헨느시의 주민단체 '빠랑부주(Parenbougé)'는 나 같은 직장인 엄마들이 많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안 보육 서비스 모델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헨느시는 인구 21만 3,000명의 아담한 도시다. 학교 밀집 도시, 행정도시, 자동차산업 도시, IT 도시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이 헨느시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빠랑부주가 운영하는 탁아소 까레(Calais)였다. IT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탁아소는 지난 2004년 4월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기존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직장 여성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빠랑부주의 조슬린 회장 역시 IT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 직장인 엄마였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에게서 여전사 같은 강한 카리스마를 읽을 수 있었다. 반면 운영 책임자인 임마누엘은 이웃집 아줌마처럼 푸근했다. 마침 까레의 책임자가 자리를 비워 임마누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까레에는 공간 곳곳에 유리창이 있어 어디에서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침 책을 읽어주는 남자 보육사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입구에는 하루 동안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하는 노트가 있었다. 아이를 찾아온 부모들은 보육사가 기록한 그 노트를 가장 먼저 읽어보고 보육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등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까레에서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생후 2개월부터 만 4살(예외적인 경우 6살)까지의 아이들을 돌보아준다. 장애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정원이 25명인데 보육사는 12명으로 1명의 보육사가 평균 2명의 아이를 돌본다. 프랑스에서는 보육사 1명이 돌보는 아이는 3명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아동별로 원하는 보육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육사 또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

엠마누엘은 “회사 근처에 탁아소가 있다 보니 아빠들이 자녀를 맡기고 돌보는 일이 일상화되고 보육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까레와 같이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낸 보육시설은 예외적이라고 했다.

빠랑부주는 재가 보육 서비스인 빠랑돔(ParenDom)도 운영하고 있다. 까레가 생기기 전인 2002년부터 제공해온 서비스다. 당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던 것이 재가 보육 서비스였다. 부모가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에 처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빠랑돔은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문제를 가진 아동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보육사를 파견해준다.

특히 일반 재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19유로로 비싼 편이라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빠랑돔은 헨느시와 가족금고, 유럽사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9유로로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불하도록 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까레 역시 차등 보육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 내는 돈은 전체 보육비용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 민간단체의 경우 예산의 30% 정도가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우리는 2002년 빠랑부주 설립을 주도한 피에르 이브 장의 집을 방문해 빠랑부주의 생생한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하얀 수염이 인상적인 마음씨 좋은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공공육아, 공동주거협동조합 등에서 활동하고 노조 컨설턴트 전문가였던 장은 2001년 헨느 시의회로부터 빌장 지역의 주거육구조사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진행했다.

당시 조사 결과 주민들은 크게 청결한 지역관리 문제, 노인들의 고립과 소외감 문제,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다. 이후 각 주제별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장은 보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여해 주민들을 조직했다. “간병인, 실직자, 수위, 청소부 등은 그런 의사를 잘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기존 공공보육으로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주민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욕구가 우리들의 문제이며, 이것은 공공 부문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조사 작업에 참여했으며, 시청을 찾아가 주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지자체와 외부 단체의 협력을 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1년 반 정도 거쳐 드디어 2002년 빠랑부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피에르 이브 장은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초심(初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이끌어내는 일상 교육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도록 친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랑부주가 성공적 보육 모델이 된 것은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의 조언, 지자체의 재정적 도움, 관련 단체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음 날 우리는 빠랑부주를 도와주었거나 현재까지 돕고 있는, ‘빠랑부주 서포터즈’들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헨스시 빌 장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연합이었다. 1970년에 설립된 곳으로 주로 빈민층을 위한 사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족들의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을 한다. 특히 아동문제 예방과 사후 대처를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연합은 빠랑부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함께 논의할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주민자치센터연합의 엄마 모임인 화요 엄마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화요 엄마’들은 계획에 없던 점심 식사를 우리에게 제안했고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관심사를 물어보고 친절

하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헨스시 시간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시간관리사무소는 헨스시 여성문제를 직업과 관련해 분석하고, 직장과 가사 양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나 만화 등을 통한 의식개혁 작업을 한다고 했다. 또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성 인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유럽의 모델은 우리에게는 부러울 따름이었다.

우리가 헨스시에서 홈스테이를 한 집의 부부도 돌이 된 아이를 빠랑부주가 운영하는 까레에 맡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된 남자아이와 6살짜리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부인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집안일을 했다. 우리에게 훈제돼지와 감자요리, 와인으로 된 저녁 식사를 차려준 것도 남편이었다. 까레를 통한 아빠들의 자연스런 보육 참여와 헨스시의 다양한 성인지적인 정책들이 어우러져 이처럼 평등한 가정을 일구어낸 것은 아닐까.

한국 사회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육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빠랑부주처럼 이용 시간대가 자유롭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빠랑부주 같은 시설이 한국에도 생긴다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 기획기사 [제328호]

<참고자료>

여성들에게

이 책은 당신을 위해 많은 여성들의 열정으로 쓰여졌다.

이 책은 마더센터 건립운동의 경험적 리포트로서, 당신을 금세 희망차게 고무시키고, 결국 마더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과 이웃마다, 모든 마을과 거리모퉁이마다,

나이와 처지를 불문하고, 시골여성이나 도시여성, 원주민이나 이민자, 혹은 외국인이든, 젊거나 나이들거나 초보엄마거나 숙달된 엄마거나, 할머니 혹은 증조할머니이거나, 일하는 여성이거나 전업주부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주목할 것이다!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껍질을 깨고 나오라!

안락을 찾기 위해 혹은 짜증과 혼란 속에 너무 자주 후퇴했던 그 껍질들을 깨고 나오라!

당신 자신과 아이들에게 공적인 삶에서의 공간을 요구하라.

마더센터를 만들라!

지금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우리 엄마들이 제공해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 여성들의 경험과 가치를 이 사회와 공적 영역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유효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하루의 힘든 노동을 마친 후 누가 우리 엄마들을 위로해줄 것인가?

우리, 엄마들은 우리의 기술과 관점으로 뭉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알고 서로를 지지 격려해줘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애지중지 소중히 여겨야 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휴식할 수 있는 공

간을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허락해야한다.

아이들과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가치들, 그리고 엄마들의 지식,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결여돼있다.

임신과 출산의 경험, 그리고 어린 생명들이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고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통해, 엄마들은 인류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관계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자연의 무시무시한 파괴의 길에, 훨씬 더 자신 있게 이런 지식들과 우리 자신을 놓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사용하고 가져와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곳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마더센터는 우리의 이슈를 가시화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이며, 공적인 공간이다.

여성들이여, 엄마들이여, 단결하라!

지원금과 공간을 요구하고, 기금을 조성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성들의 일과 문화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라!

마더 센터를 만들어라! 많은 마더센터들을! 전 세계 모든 곳에!

- 책을 쓴 여성들로부터, 마더센터 책자 서문에서 -

<참고자료>

공동체와 품앗이

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크리치필드(Critchfield)라는 한 미국인 저널리스트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현장 취재기자로 일하면서 세계의 마을과 도시를 안 가본 데가 없이 돌아다녔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취재파일을 책으로 엮어 내면서 “마을사람들”(The Villagers)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책에서 그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혼돈은 주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도시의 파괴적 성향은 도시가 농촌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는 농촌이라는 배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농촌을 파괴하고 있어 인류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 인류가 도시의 배경이 되는 농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 인류는 아직 도시적 삶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으며 끝끝내 적응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안이 있다면 도시가 파괴한 ‘마을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는 농업에 기초한 건강한 농촌과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자면 상당수의 인구가 텃 비어버린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아마도 도시에 싫증을 느낀 일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만든 모든 값나는 것이 모두 도시에 몰려있는 한 누구도 자발적으로 시골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여 크리치필드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까지만 해도 거의 90%가 마을공동체 속에서 살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급격한 공업화 정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제3세계국가들은 여전히 그렇다. 이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의 문화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을문화를 마치 박물관에 안치된 과거의 것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과거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현재가 과거의 축적임을 상기한다면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관념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야말로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오래된 집단무의식에 속할지도 모른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종으로서 인류의 역사보다도 오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생물들은 '적대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Community)를 이루어 삶을 도모한다. 벌이나 개미는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 대단히 조직적인 '사회적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유인원 또는 영장류도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구와 불을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조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농업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수백만 년으로 보면 인간이 공동체를 벗어나 산 기간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시간이다. 한참을 내려와 농업의 역사를 만년 정도로 잡아도 인간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옮겨가 산 기간은 마을의 그것에 비해 1/100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99% 이상이 마을 또는 공동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간은 도시에 살면서도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며, 명절만 되면 고향마을을 찾아가는 것이다.

공동체의 장구한 역사가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의 실체 또는 실상과도 연관이 있다. 기억은 실체 또는 경험을 전제로 한다. 겪지 않은 것은 절대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다. 한번 겪은 것은 기억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그 기억은 다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지금의 인간은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성장, 진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여기에서 공동체는 '사회' 또는 '이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회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웃은 단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공동체라는 말은 적어도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책임의

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에 의해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 쓴다. 요즘 유행하는 전원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한 지역에 함께 살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원초적 형태를 가장 온전하게 보전하고 있는 사회조직은 '마을공동체'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비록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인간의 안식처였지만 공동체를 깨고 들어선 현대의 산업도시가 인간의 새로운 미래라고 한다면 굳이 낡은 사회모델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과거가 아무리 소중한 길다해도 새로운 현실이 만족스럽고 지속가능하다면 올바른 지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소비와 경쟁이 난무하는 현재의 도시체제는 만족은 차치하고라도 지구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림으로써 더 이상 추구하기 곤란한 모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가 뭐라 해도 도시의 시대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80%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다. 추세가 이러한데 여전히 마을공동체를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시골지역에 마을공동체를 건설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갈갈이 찢어진 살림구조를 공동체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도시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사안이지만 어디까지나 주체는 지역주민이며 계획의 기본단위는 동이나 특정 살림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부터 공동체 형성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도시는 수많은 공동체들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되어 갈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를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 여기 저기서 행해진 사례들을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담장 허물기** : 대구시 삼덕동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관공서에까지 확대되어 지난 10년 동안 362곳에 총 17Km의 담장을 허물어 가로공원 7만 8천여 평을 조성했다. 담장이 없어지면 온 동네가 다 이웃집이 된다.

2. **골목길 사이와 교차지점에 조그만 공원이나 쉼터 만들기** : 특히 담장을 허물게 되면 작은 공원이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겨난다. 동네 사람들이 쉽게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주민들 사이의 벽을 허문다.

3. **도로를 통과하는 차속도 줄이기** : 집 앞의 도로를 통과하는 차의 속도가 높을수록 길 건너편은 남의 땅으로 느껴지고 차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가까운 이웃으로 느껴진다. 구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골목길을 아예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도로 한 가운데에 자리를 펼쳐놓고 동네잔치를 벌인다든지 아이들이 줄넘기 놀이를 한다든지 하여 외부차량으로 하여금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주민전용구역(residential precinct)이라고 부른다.

4. **적절한 밀도의 주거공간 확보** : 주거공간의 너무 분산되어 있어도, 너무 고밀도여도 안 좋다. 우리나라는 초고층 아파트 위주로 주거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보다는 3~5층 사이의 연립아파트나 빌라 형태가 적절하다.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내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 **녹색화** : 중앙녹지화, 공원광장, 옥상가든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녹색비율을 높인다.

6.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 인근에 주말농장을 만들고 동네 안팎에 있는 나대지나 공터에 주민공동텃밭을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와 옥상에도 푸성귀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공동체 형성은 물론 음식물 찌꺼기 처리와 식량자급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7. **명상의 장소 만들기** : 공동체라고 해서 늘 사람들만 벽적거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조용히 쉬거나 명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곳을 영어로 sanctuary라고 한다. 공동체에 있는 일종의 숨구멍과 같다. 시골 같으면 보통 마을숲이나 산이 이런 역할을 한다. 도시에서도 이런 으스스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전혀 그럴 여유가 없다면 실내에라도 명상의 공간을 만든다.

8. **공동주거(Co-Housing)** : 공동체에 대한 실험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나 저소득

층 또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동체 주거 양식이다. 각자의 거실과 침실을 가지고 있으나 부엌과 휴게실을 공유하는 집단주거 방식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협과 품앗이로 지역공동체만들기

이상은 주로 공동체의 하드웨어에 관한 사항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가지느냐 이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로 ‘생협’과 ‘품앗이’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경우에 따라 겹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협 보다는 품앗이가 좀 더 품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념 또는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든 필요에 의해 품앗이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수 십 개의 품앗이(지역화폐)가 작동 중인데 서구와 달리 경제적 대체효과 보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앗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적 삶과 경제이지만 도시라는 삶의 조건이 워낙에 의존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틈새를 메우는 보조적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직시하고 품앗이를 경제적 도구로 쓰기보다 사회적 도구로 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지역화폐(품앗이)의 사례와 이론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동기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품앗이가 저소득층에게 특별히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저소득층은 생계노동에 허덕이느라고 품앗이 같은 일에 관심을 돌릴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하여 이들이 품앗이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다. 워낙에 중고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다 품앗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습성이 강하게 박혀 있어 품앗이 같은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품앗이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가 여유이고, 둘째가 의식화이다. 먼저 여유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에 쫓기는 사람에게 여유를 가질 것을 무작정 요구하기는 어렵다. 여유는 단지 시간의 개념

만이 아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여유로울 수가 있다. 여유는 말하자면 심리상태의 반영인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유는 세계관 또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이 덧없는 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평생 여유를 모르고 살게 되어 있다. 세태로부터 거리를 두고 관조할 줄 아는 세계관 또는 인생철학이 필요하다. 하루 6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신념과 철학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부족한 생계비는 확보된 여유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품앗이와 생협, 공동체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되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세태를 열심히 쫓는다고 해서 주류에 편입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삶은 삶대로 피폐해지고 소수의 승리자를 부러워하는 잉여인간이 되기 쉽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유는 곧 의식화와 같은 맥락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살았지만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래 공동체를 잃어 버렸다. 몇 세대에 걸쳐 공동체적 삶과 살림살이가 단절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갈 데까지 간 자본주의적 '이익사회'의 대안이 공동체로 판명이 남으로써 우리는 다시 공동체를 배워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문제는 어떻게 배우냐 인데,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울 수는 없다.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된 서구에서는 경제적 동기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어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한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공동체 만들기가 쉽지 않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는 여전히 공동체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정'(情)이다. 한국은 비록 단기간에 급속히 서구화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사이의 '정'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에 기초한 모임을 만들어 그로부터 품앗이도 하고 교육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고 정을 톤 다음에야 교역도 이루어지고 학습도 이루어진다. 정만 있으면 웬만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곳이 한국이다. 한발레츠의 품앗이 만찬이나 송파품앗이의 간담회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은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마을공동체이지만 대다수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를 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다. 공동체를 구

성하는 요소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둘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에 근거한 다양한 모임(교육, 강습, 취미, 취업, 교양 등)을 만들어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품앗이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 품앗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품앗이가 활성화되면 이와 연관된 다양한 주민조직들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의식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동체 의식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는 공동체 사업을 벌여 나간다.

품앗이육아공동체

엄마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품앗이육아공동체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육아형 어린이집 운영과는 다른 공동체 활동이다. 즉 공동육아형 어린이집은 마음이 맞는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키우자’라는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사선정에서 교육과정, 간식 등 부모들이 출자해 설립한 어린이집인 만큼 보육과정에 있어 많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육아의 형태이다.

품앗이육아, 품앗이 학습은 말 그대로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아이들을 키우고 학습하는데 있어 품앗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비슷한 연령이거나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을 돌봐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다른 엄마에게 배우자는 것으로 가정과 가정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키움으로 엄마와 아이, 가정과 가정이 호흡을 맞추어 육아와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이다.

품앗이육아공동체는 고립적인(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지역주민의 단절성에서 야기되는 고립) 육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녀를 건강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과 다른 가정이 모여 함께 자란 아이는 다양한 인적교류로 인해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사회성이 잘 길러진다.

둘째, 주 양육자이며 지역사회 주체인 엄마들의 정체성 회복이다. 전업주부로서 전적으로 양육과 가사 일에 매달려온 주부는 다른 가족과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품앗이육아의 한 부분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직접 가르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자존감 향상, 이를 위한 자기계발 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늘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품앗이육아공동체를 통해 고립적인 핵가족 문화가 지닌 가족이기주의, 이

웃과 단절된 삶이 회복되면서 엄마와 자녀가 건강한 사회의식을 성장시키게 되며 이는 품앗이육아공동체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민자치, 시민자치의 주역, 씨앗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잘 되는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한다. 품앗이육아공동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 엄마들이 성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주민모임도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성장한 주민모임은 지역 내에서 스스로가 모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게 된다.

탄생, 성장 그리고 독립 이것이 주민모임의 발전적인 성장모델이 될 것이다. 성장해서 독립한 주민모임은 인연을 놓지 않고 주민활동가로서 품앗이육아활동의 선배로서 새로운 품앗이육아, 주민모임이 탄생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품앗이육아공동체 안에서 몸소 체험한 가족친화, 공동체, 더불어 삶의 가치를 우리의 또 다른 이웃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갈등 회피와 갈등 해결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인간 사회는 갈등과 협력이 그 생동의 원천이지요. 성미산학교 역시 갈등이 없을 수 없는 동네일 겁니다. 인류가 갈등을 회피하거나 적나라한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껏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일 년 반 전에 내가 이 학교에 초대를 받았던 것도 내부인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을 좀 잘 풀어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면 좋겠다는 말에 꼬여서 왔던 것이고 지금 또 한 차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이제 성미산 나름의 다이내믹스가 있고 현명한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니 지혜를 모아 잘 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햇’한 성질로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찾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슬그머니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단 ‘쿨’하게 거리를 두고 보면서 상황을 파악해 가면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갈등 회피형’ 사람들이 많으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학교를 만든 따뜻한 분들 가운데는 불행하게도 갈등 회피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쿨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승적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갈 수 있으면 합니다. 상생의 효과를 얻기 위해 갈등을 드러내고 토론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책임질 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진화시킬 팀이 없으면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모두가 불안하기만 할 겁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가면 늘 혼란 속에 있을 겁니다. 초등과 중등을 나누게 된 것도 능력을 갖춘 팀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책임을 지겠다는 팀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내부에 신뢰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신뢰가 있으면 그래도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팀이 굴러갈 수 있지요. 신뢰가 안 가는 사람과는 애초에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책임지는 기획 진행팀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성급함은 금물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가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니깐요. 중등이나 초등은 일단 책임지는 팀으로 가되, 그 팀이 지향하는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토론회, 평가회, 비전 회의를 자주 열고 학부모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 바랍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평가이어서 따로 질문서를 돌리는 등의 평가는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 두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체험과 깨달음의 자율 공간이 필요합니다. 목마르다는 말을 하기 전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목마르다는 말을 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니깐요. 아이들은 자신이 쓰임새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골몰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즐거움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들이 자기 시대를 넘어서야 하지요. 항상 배우면서 가면 합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만사의 기본입니다.

2006

공동체에 대한 개념정의

사람들이 모여 유기체적 성격의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공동체라 일컫는다.

여기에는 단순한 결속보다는 질적으로 더욱 강하고 깊은 관계의 형성은 물론, 구성원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즉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된 실천관행에 참여하며,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이 공유 또는 구축되는 장으로서 공동체는 존립의 가치를 갖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가리킨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의 평균적인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합으로서 하나의 확고한 체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구성원들 각자의 개인의식에 대해 일정 수준의 규제력을 갖는 점이 특성이다. (한상복 1982)

공동체 의식의 형성 및 역할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지칭하며,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적 형태의 공동체를 마을공동체라 한다.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

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 자립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곧 마을공동체이다.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마을공동체의 재구성이라 함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재해 2008)

마을공동체의 의미

세계사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보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 중세적 개념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사회의 분열과 물질중심의 사회현상이 발발,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사회가 초래된 데 대한 반발로서 점차 공동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19세기에는 이상적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조적으로 암울했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지향할 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표피적이고 단순·획일적인 측면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보다 분권적이고 영역화된 형태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협력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보편화 구상 단계로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주민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공동생산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공동체 확산 운동이 제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최근의 경향 중 하나이다. (김미경, 김영희, 서동희 2004)

공동체 논의의 흐름

오늘날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됨에 있어 바람직한 형태로 구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상은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은 물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던 도시공간이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담아내어 삶의 활기와 생기,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소통의 공간’ 으로의 재편이다.

즉,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사적 공간의 무미건조한 집합체였던 도시공간 곳곳을 마을공동체로 채워나감으로써 이웃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더불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곧 적극적 실천행위로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김은희 2005)

[추천도서]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편해문, 소나무
함께크는 삶의 시작 공동육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또하나의문화
코뿔소 나들이 가자 - 공동육아2, 공동육아연구원, 또하나의문화
다시 마을이다 -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조한혜정, 또하나의문화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조한혜정 외, 또하나의문화
우린 마을에서 논다 - 성미산마을살이1, 유창복, 또하나의문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K. 간디, 녹색평론사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 정기석, 이매진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 생태적 대안운동을 찾아서, 구도완, 창비
소호와 함께 마을만들기 - 자치 단체와 협동을 위한 길라잡이, 시바타 이쿠오, 아르케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 이야기, 박원순, 검동소
마을이 학교다 - 함께 돌보고 배우는 교육공동체, 박원순, 검동소
마을 회사 - 공동체를 살리는 대안 경제, 박원순, 검동소
마을, 생태가 답이다 -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박원순, 검동소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 - 약부터 집까지 협동조합에서 산다, 김태열 외, 그물코
협동조합, 참 좋다 - 세계 99%를 위한 기업을 배우다, 김현대 외, 푸른지식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정태인 외, 레디앙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마을의 귀환]

노크 않는 1번방 아가씨, '어메이징' 영국을 가다
[마을의 귀환, 영국편-프롤로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찾아서

372평 땅 5년간 공짜로 빌려준 부동산회사... 진짜?
[마을의 귀환-영국편 ①] 런던 웹블리(Wembley) '민와일 스페이스'

26개국 떠돌던 75세 나탈리 "그래, 바로 여기야!"
[마을의 귀환-영국편 ②] 스트라우드 '스프링힐 코하우징'에 가다

86세-64세 모자 상인 "대형마트 두렵냐고?"
[마을의 귀환-영국편③] 영국판 '문전성시', 140년 전통 브릭스톤 시장

대낮에 영화관 앞에서 쇼하는 공무원들, 왜?
[마을의 귀환-영국편④] 런던 브릭스톤의 민관협력 재개발

청국장 좋아하는 영국인, 소말리아 난민과 친구되다
[마을의 귀환-영국편⑤] 브리스톨의 마을활동가 레베카

통후추 한 알 주고 건물 100년 임대...정말?
[마을의 귀환-영국편⑥]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회사

콘돔과 마약 바늘 텅구는 마을, 어떻게 최고가 됐나
[마을의 귀환-영국편⑦] 혈의 굿윈 마을만들기 사업체

"섬 전체가 마을공동체 소유"... 어떻게 가능하냐고?
[마을의 귀환-영국편⑧] 로컬리티의 스티브 클레어 인터뷰

의사-디자이너가 왜 불타버린 주차장에서...
[마을의 귀환-영국편⑨] 에너지 자립 마을 '트랜지션 타운'

버려진 마구간, 자폐아들의 놀이터 될까
[마을의 귀환-영국편⑩]'로컬리티(Locality)' 워크숍 참관기

"아파트에 공용세탁실 만들면 삼성전자 싫어할걸?"
[마을의 귀환, 영국편-에필로그] 열흘간의 취재, 그 뒷이야기

"강남에선 월 5~6백만원 써도 부족했는데...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내 삶은 없었을 것"
[마을의 귀환①] 강북구 삼각산재미난마을

2012년도 서울 마을공동체 지도를 공개합니다
[마을의 귀환②] 25개 자치구별 사례 정리... 92개 '씨앗' 정리

"밤에 잠만 자러 왔던 동네가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도청하나 봐요"
[마을의 귀환③] 서울 동작구 성대골 마을

'토건'에서 '관계'로... 천 개의 마을이 온다

[마을의 귀환④] 왜 지금 '마을'인가

'폭염' 한 달 전기료 1만6천원...놀라운 비결

[마을의 귀환 ⑤] 성대골마을 제1회 에너지 축제

"밤에 미친 짓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묻지마 범죄'가 두렵지 않은 이유

[마을의 귀환 ⑥]'달동네의 변신' 은평구 산새마을

남문시장 '빨간 고리바지'의 비밀, 아시나요?

[마을의 귀환⑦] '전통시장과 예술의 만남'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공동체

"무시하는 거야? 우리도 <도둑들> 보여줘!"

[마을의 귀환 ⑧] 신사동 산새마을 '별이 빛나는 영화제'

"목도리 두르고 죽자사자 장사만?" 생선가게 주인이 도서관 관장된 사연

[마을의 귀환⑨] '시골벽적' 시장에 도서관이...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

"박원순 이후에도 계속되는 '마을' 만드는 게 관건"

[마을의 귀환 ⑩ 인터뷰] 김낙준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과장

서울을 '고향'이라고 말하기 쑥스럽다면?

[마을의 귀환⑪ - 기고] 삼각산 재미난 마을 주민 김정옥씨

'마을만들기'가 별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마을의 귀환⑫ - 기고]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미스터리'가 만든 <건축학본론>, 함께 보실래요?

[마을의 귀환⑬-기고] 송주민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활동가

"우리 마을이 아프리카까지 소문났대요"

[마을의 귀환⑭] 부산 감천문화마을, '슬럼' 딛고 도시재생 상징으로

아파트에서 '농사'짓는 '강북 대치동' 주민들

[마을의 귀환⑮] '텃밭부터 마을기업까지'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흰둥이' 트렁크를 가득 채워주세요

[마을의 귀환 16] '나눔푸드'로 이웃 돌보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공동체

속옷 바람으로 이웃집 기웃기웃 얼토당토 않은 꿈이 현실이 된다

[마을의 귀환 17]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박원순 부대?'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인가 마을공동체, 한국형 복지국가 핵심동력 될 것"

[마을의 귀환18] 마을공동체 전문가 박원순 서울시장

흥대 놀러가면 술 마시고 노래방...구로에서는?

[마을의 귀환19] 2030 청년들의 마을 프로젝트 '구로는예술대학'

"우리 마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의 귀환 20] 도봉구 사람들을 연결하는 마을신문 <도봉N>

"변두리?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세련됐다"

[마을의 귀환 21] 대표 정책이주마을에서 대표 마을공동체가 된 부산 '반송마을'

"흥대 클럽데이도 아닌데, 사람들이 새까맣게..."

[마을의 귀환 22]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야시장 개장

동네 밖 나갈 일 없는 서울시민, 무슨 일 하기에?

[마을의 귀환 23] 재개발 예정지에서 대안 개발 꿈꾸는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가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2000원!"

[마을의 귀환 24] 마을과 경제의 만남, 부산 금샘마을공동체

달동네로 떠난 예술가들, 사고 제대로 치다

[마을의 귀환 25] 청년예술가와 마을의 만남, 서울 성북구 정릉생명평화마을

증권이 '신의 손'이었던 그, 아이들의 '복실이' 된 이유

[마을의 귀환 26] 청소년 문화공동체 송파구 '즐거운가'

불타는 금요일 밤, 강남 지하카페에선 무슨 일이...

[마을의 귀환 27] 협동조합형 커뮤니티 카페, 서초동 '우리마을카페오공'

40년 만의 흑한, 보일러 없이 지내는 비법은?

[마을의 귀환 28] 동작구 '성대골 마을'의 친환경적 겨울나기

선생님에게 야자 트는 '당찬' 아이들 잘 자란 아이 덕분에 생협 결성까지

[마을의 귀환 29] 어린이집에서 커뮤니티 카페까지...용산구 용산 생활협동조합

도봉구에서 만든 생리대, 북한 갈 수 있을까

[마을의 귀환 30] 나눔실천하는 마을기업, 도봉구 '목화송이'-서대문구 'A카페'

재개발로 원수 된 주민들, '머머리섬'에서 만나다

[마을의 귀환 31] 축제로 주민화합 이끌어낸 대구 삼덕마을

구청에 데모하러 갔던 주민들, 이제는 달라졌어요

[마을의 귀환32] 민관협력 실현하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울시내 최고였던 '행복마을', 왜 실패했을까

[마을의 귀환 33]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흥망성쇠

"거금 7000만원, 왜 그냥 돌려줬냐고요?"

[마을의 귀환 34] 자하골 친구들·숲누리·개미마을 분투기

"박원순 시장 없으면 마을 만들기도 끝? 천만에, 이미 민간네트워크 만들어졌다"

[마을의 귀환35-마지막편] 마무리 좌담회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공동체교육 자료]

- 일본의 마을공동체(동경 세타가야구) 사례 소개

일본, 동경 세타가야구의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강연한 '일본의 마을공동체(동경 세타가야구) 사례' 강의 프리젠테이션 파일입니다.

- 마을을 품은 서울 1탄 :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왜 다시 마을이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도시화의 자유로움과 분방함, 높은 빌딩 숲 속에서 사람의 정이 그림고, 친구가 그림고, 이웃이 떠오르는 우리들에게 마을

이 오래된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은 누군가에게는 친구이며, 누군가에게는 단골집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겨운 골목길입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이유, 박원순 시장의 강연에서 답을 찾으세요.

- 마을을 품은 서울 2탄 :

마을살이 20년째인 성미산마을 동네부역의 박미현 대표를 통해서 마을 재미에 푹 빠진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마을을 품은 서울 마지막편 : 정병호 교수,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을 키우는 아이들'...

정병호 교수는 성미산을 있게 한 공동육아의 주인공이시죠!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아이들은 마을을 있게 하더군요.

아이때문에 부모가 만나고, 아이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을속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세대가 교류하면서 사는 재미가 있는 마을이 이뤄지더군요. “마을을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소개

- 영문명 Cooperative Childcare & Education
- 누리집 www.gongdong.or.kr
- 이메일 gongdong@gongdong.or.kr
- 주 소 (121-839)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201호
- 전 화 02)323-0520, 1692
- 오시는 길 합정역 2번출구 → 뒤쪽 → 마포만두 골목길 → 4차선 도로까지 직전(10분) → 웨밀리마트끼고 우측 → 문턱없는밥집 건물 2층

단체 소개

1978년 빈민지역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육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전국의 2100여 가족, 450여명 교사와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동으로 자라났습니다. 현재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지역커뮤니티형 공동육아, 국공립 공동육아어린이집, 협동조합형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대안초등학교 등 참여와 협력의 상호호혜적인 돌봄 사회를 향한 공동육아의 새로운 모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

내 아이, 남의 아이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계층, 지역, 성,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부모와 교사의 참여와 협동으로 바람직한 육아혜택을 ‘누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행복한 ‘즐거운 공동육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법인 주요사업

지원사업	모델개발사업/저소득사업	온라인 공동육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운영지원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 설립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회원을 위한 사업	공동육아 사회적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센터 운영 국공립 공동육아어린이집 위탁 운영 부설기관 ‘해송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공동체학교 네트워크 지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이트 운영 공동육아 관련 정보제공 뉴스레터 e-공동육아 매월 발행
교육사업(부모/교사)	연구출판사업	대외협력사업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자격과정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 재교육과정 공동육아 방과후 교사교육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진 교육 부모교육/토요입문강좌/열린특강	계간 ‘공동육아’ 발행 공동육아 교육과정 연구 및 발간 공동육아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구 및 발간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	보육 교육 관련단체와의 연대 어린이 관련 단체와의 연대 공동육아 한마당 개최(2년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